

원저자 전순의, 김의손  
국역/해제 홍세영

重刻  
鍼灸擇日編集  
국역



9 788959 701926 (EPUB)  
9 788959 701933 (MOBI)  
9 788959 701889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서문	1.1
인용서목 引用書目	1.2
본문	1.3
침구 시술에 좋은 날 鍼灸吉日	1.3.1
천의 길일 및 잡기일 보는 법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1.3.2
《천금방》의 침구금기법 《千金方》忌鍼灸法	1.3.3
《천금방》의 사시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推四時人神忌	1.3.4
《천금방》의 십이지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十二支人神忌	1.3.5
《천금방》의 십간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十干人神忌	1.3.6
《천금방》의 시간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逐時人神忌	1.3.7
《천금방》의 일진에 따른 금기 《千金方》日辰忌	1.3.8
《천금방》의 12부위 인신금기 《千金方》十二部人神忌.	1.3.9
《천금방》의 침구 금기일 《千金方》鍼灸忌日	1.3.10
《천금방》의 침구 금기법 《千金方》忌鍼灸法	1.3.11
《동인수혈침구도경》의 사시별 태일신 금기 《腧穴經》四時太一神忌	
《동인수혈침구도경》의 태일인신(太一人神) 금기 《腧穴經》太一人	1.3.12
神忌	1.3.13
《천금방》의 9가지 부위 인신 금기 《千金方》九部人神忌	1.3.14

---

《명당구경》의 고신법 《明堂經》尻神法	1.3.15
《천금방》의 12부위에 따른 인신 금기법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소씨병원론》의 나이에 따른 인신 금기 《病源論》年人神忌	1.3.16
《용수보살안론》의 눈 치료 금기일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1.3.17
《소문영추경》의 자침금기 《素問靈樞經》凡刺之禁法	1.3.19 1.3.18
《침경지남》의 잡기법 《鍼經》雜忌法	1.3.20
《황제명당구경》의 하늘 기색 보는 법 《明堂經》候天色法	1.3.21
《이간방》의 고향(膏肓)에 땀 뜰 때 금기법 《易簡方》灸膏肓忌法	1.3.22
《자생경》의 쑥뜸에 관한 잡설 《資生經》灸艾雜說法	1.3.23
《자생경》의 뜸에 불 붙이는 법 《資生經》點艾火法	1.3.24
장계유(莊季裕)의 고향(膏肓)에 뜸 뜰때의 금기법 莊季裕灸膏肓忌法	
발문 跋	1.4 1.3.25

## 해제·출판

해제	2.1
출판사항	2.2

## 1.1. 서문

### 1.1.1. 鍼灸擇日編集序 침구택일편집 서문

光緒庚寅孟秋 上杭羅氏彙梓

광서(光緒) 경인(庚寅)년 7월, 상항(上杭) 나씨(羅氏)가 모아서 판각하였다.

醫之道有二焉, 曰藥餌也, 鍼灸也. 而療病簡易之法, 莫妙於鍼灸, 要在精於心, 應於手耳. 苟能審榮衛, 辨筋骸, 明孔穴之部, 定尺寸之分, 則雖沈疴痼疾, 何憂乎弗瘳? 古人云, 知藥而不知鍼, 知鍼而不知灸, 不足爲上醫, 信乎鍼灸之爲重也. 然鍼灸之法, 雜出於諸方, 擇日之際, 或迷於吉凶, 業斯術者, 嘗病焉. 內醫院醫官, 護軍臣全循義, 司直臣金義孫, 攻乎此者也. 搜摭群書, 裒集一編, 人神太乙之所主, 天醫雜忌之所在, 條分類析, 纖悉無遺, 書成以進.

의원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는 약과 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침과 뜸입니다. 그러하되 병을 치료하는 간편한 방법은 침구만큼 오묘한 것이 없으며, 침구치료를 할 때에는 마음을 정밀하게 하여 손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영위(榮衛)를 살피고 근골을 분별하며, 혈 자리를 밝히고 척촌의 구분을 정하게 되면 비록 깊고 오래된 고질병이라도 어찌 낫지 않는다고 근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약은 알아도 침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침은 알아도 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침구의 막중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구법은 여러 방서에 잡다하게 나와 있으므로 택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길흉에 착오가 생길 수 있기에 이 기술을 업으로 삼은 자들이 일찍이 이를 근심해 왔습니다. 내의원 의관 호군(護軍) 신(臣) 전순의(全循義)와 사직(司直) 신(臣) 김의손(金義孫)은 이러한 점을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 못 방서를 뒤져서 모은 것을 하나

로 엮어, 인신태을(人神太乙)<sup>1</sup>의 주재와 천의잡기(天醫雜忌)<sup>2</sup>의 소재를 종류별로 조리 있게 나누고 유형별로 갈라서 자세하게 궁구하여 남김 없게 하였으니, 책이 완성됨에 이렇게 바칩니다.

命臣序之, 臣竊念, 鍼灸有劫病之功, 而又有立效之能, 信斯術之爲重也. 然人受天地之中, 稟陰陽之氣, 甲膽乙肝, 臟腑自分於十干. 春井夏榮<sup>3</sup>, 經絡皆通於四時. 則時日支干, 與人身而運焉, 吉凶悔吝, 隨人事而應焉. 故《鍼經》云, 得時鍼之, 必除其病, 失時刺之, 難愈其病, 則鍼灸之道, 尤莫重於擇日也. 是書之廣布, 蓋欲使人, 辨吉凶於過眼之頃, 療膏肓於投手之餘, 共免夭札之患, 同躋仁壽之域. 凡囿於聖化者, 可不知聖朝仁心仁政之所自歟?

신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쓰게 하심에 신이 조심스레 생각해보건대, 침구는 병을 물리치는 공과 함께 바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지녔으니 이 기술이 참으로 중요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지간의 음양 기운을 품부 받아 갑담(甲膽), 을간(乙肝) 등으로 장부가 천간에 배속되고, 춘정(春井), 하형(夏榮) 등으로 경락이 사시에 통해 있습니다. 즉, 시일과 간지는 사람의 몸과 더불어 운행하고 길흉회린(吉凶悔吝)은 사람이 하는 바에 따라 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경》에서도 말하기를, 때에 맞추어 침을 놓으면 반드시 병이 없어지지만 때에 맞지 않게 찌르면 병이 낫기 어렵다고 하였은즉, 침구의 도리에서 택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을 널리 반포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이 가려지는 위급한 때에 길흉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손을 놓아버리고자 할 때에 병을 낫게 함으로써, 모두가 요절의 근심을 면하여 함께 어질게 오래 사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무릇 성상의 덕화 속에서 노니는 자가 성조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가 계심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正統十二年正月初六日,

정통(正統) 12년(1447, 세종 29년) 정월 초육일,

奉訓郎 集賢殿副校理 知製敎 兼 春秋館記注官 世子左司經, 臣金禮蒙謹序.

봉훈랑(奉訓郎) 집현전부교리지제교(集賢殿副校理知製敎) 겸(兼)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세자좌사경(世子左司經) 신(臣) 김예몽(金禮蒙)이 삼가 서문을 씁니다.

### 1.1.2. 重刊序 중간(重刊) 서문

宋團練使張公渙所著,《鷄峯普濟方》,惜已無傳,幸《備急灸法》,猶得留遺東海. 按其圖說,以療沈疴,當無有弗瘳者. 但日有旦暮明晦,序有四時榮枯,人身一小周天,安得不慎. 其所事期,無背於古,無戾於今,準而行之,斯技也,而進乎道矣. 余既將《備急灸法》,壽諸梨棗嗣. 復獲明醫院官,全循義,金義孫等,《編集鍼灸擇日》一卷,考覈群書,詳明賅括. 蓋多紀氏舊鈔本卷,首有多紀氏藏書印. 嘗攷多紀元堅,多紀元昕,皆爲日本侍醫敎諭,鑒賞自異凡庸. 原本霉腐蟲蝕,字跡間有漫漶. 乃屬友人于小宋,茂才悉心校勘,別錄副本,與《備急灸法》彙爲一集. 俾人人知所循守,則救疾之良,孰有踰於此者乎?

송의 단련사(團練使)<sup>4</sup> 장환(張渙)<sup>5</sup>이 지은 《계봉보제방(鷄峯普濟方)》은 애석하게도 전하지 않으나 다행히 《비급구법(備急灸法)》은 오히려 동해(東海)<sup>6</sup>에 남아 머무르고 있었다. 이 책에 모아놓은 그림들을 살펴 고질병을 치료한다면 낫지 않는 병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하루 중에는 아침과 저녁에 따른 밝음과 어둠이 있고 때의 차례에는 춘하추동에 따른 피고 짐이 있으니, 인체가 한번 소주천(小周天)을 하는데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그 주기를 따르는 바가 옛것에 어긋남이 없고 현재에도 어그러짐이 없어 법도에 맞추어 행하니, 이것이 기술이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일전에 《비급구법》을 얻었으니 이조사(梨棗嗣)에서 오래도록 보관되어 오던 것이다. 또한 명(明)의 태의원(太醫院) 의관 전순의와 김의손 등이 편집한 《침구택일편집》한 권을 얻었으니, 못 서적을 조사하여 상세히 밝히고 모두 모아 갖춘 책이다. 일본의 다기(多紀)씨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일본으로 가져왔으니 책머리에 다기씨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일찍이 상고해보니 다기원건(多紀元堅)과 다기원흔(多紀元昕)은 모두 일본의

시의교유(侍醫敎諭)를 지낸 이들로, 살펴보니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원본은 글이 쓰인 부분이 낡아서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먹어 글자가 여기저기 흐릿하고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에 벗 우소송(于小宋)에게 부탁하였으니 그가 뛰어난 재능으로 마음을 다하여 교감하고 별도의 부분(副本)을 기록하였고, 이것을 《비급구법》과 함께 하나로 묶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야 할 바를 알게 한다면 병에서 구해내는 방법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光緒庚寅秋七月, 少畊羅嘉杰附識.<sup>7</sup>

광서(光緒) 경인(庚寅)년(1890, 高宗 27년) 가을 칠월, 소경(少畊) 나가걸(羅嘉杰)이 붙여 쓰다.

1. 인신태을(人神太乙): 인신(人神)과 태을(太乙)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인체의 각 부위를 순환하여 머무르는데, 이러한 인신과 태을이 머무는 부위에 침구치료를 하거나 출혈시키게 되면 인체 정기를 손상시킨다고 보아서 이를 금하였다. ↩

2. 천의잡기(天醫雜忌): 천의일은 침구택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택일법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날로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에 적합한 날로 여겨져 왔다. 잡기(雜忌)는 그 외의 다양한 금기일을 말한다. ↩

3. 榮: 榮의 오기이다. ↩

4. 단련사(團練使): 지방관을 말한다. ↩

5. 장환(張渙): 북송 말년에 개봉(開封)에서 매약업(賣藥業)을 하였다. 약을 써서 송(宋) 휘종(徽宗)의 아들을 치료하여 한림의정(翰林醫正)의 벼슬에까지 올랐으며 위에서 언급한 《계봉보제방》 이외에도 《소아의방묘선(小兒醫方妙選)》 3권이 있으나 모두 전하지 않는다. ↩

6. 동해(東海): 일본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

7. 光緒庚寅秋七月, 少畊羅嘉杰附識 : 나가걸이 《침구택일편집》과 《비급구법》을 발견한 후 함께 묶어 출간하면서 붙인 서문이다. 《비급구법》은 본래 북송의 장환이 지은 책으로, 당시에 이 책을 복간하였던 나가걸은 자신이 일본에서 발견한 《비급구법》과 《침구택일편집》 두 서적이 모두 중국에서 저술되었다가 실전된 의서라고 믿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의 내의원(內醫院) 의관인 전순의와 김의손도 명나라 태의원(太醫院) 의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



## 1.2. 引用書目 인용서목

《孫真人備急千金方》

《손진인비급천금방(孫真人備急千金方)》<sup>8</sup>

《黃帝明堂灸經》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sup>9</sup>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보주동인수혈침구도경(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sup>10</sup>

《太平聖惠方》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sup>11</sup>

《寶漢卿編集鍼經指南》

《두한경편집침경지남(寶漢卿編集鍼經指南)》<sup>12</sup>

《新刊銅人鍼灸經》

《신간동인침구경(新刊銅人鍼灸經)》<sup>13</sup>

《鍼灸廣愛書括》

《침구광애서괄(鍼灸廣愛書括)》<sup>14</sup>

《事林廣記》

《사림광기(事林廣記)》<sup>15</sup>

《齊人千金月令》

《제인천금월령(齊人千金月令)》<sup>16</sup>

《元龜集》

《원구집(元龜集)》<sup>17</sup>

《龍木總論》

《용목총론(龍木總論)》<sup>18</sup>

《資生經》

《자생경(資生經)》<sup>19</sup>

《素問靈樞經》

《소문영추경(素問靈樞經)》

《巢氏病源論》

《소씨병원론(巢氏病源論)》<sup>20</sup>

《易簡方》

《이간방(易簡方)》<sup>21</sup>

《龍樹菩薩眼論》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sup>22</sup>

---

<sup>8</sup>. 《손진인비급천금방(孫真人備急千金方)》: 《침구택일편집》의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천금방(千金方)》으로 약칭하였다. ↵

<sup>9</sup>.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 《침구택일편집》의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명당(明堂)》으로 약칭하였다. 북송 말에 한 서적상에 의해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sup>10</sup>. 《보주동인수혈침구도경(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본문에서는 《수혈(腧穴)》로 약칭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동인경(銅人經)》, 혹은 《동인(銅人)》으로

전한다. 이는 송의 왕유일이 지은 책이며 이후에 <침구피기태일지도(鍼灸避忌太一之圖)>가 보입된 책이 《신간보주동인수혈침구도경(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이다. ↩

11.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본문에서는 《성혜(聖惠)》로 약칭하였다. 송나라 때인 992년에 간행된 방서(方書)이다. ↩

12. 《두한경편집침경지남(竇漢卿編集鍼經指南)》: 본문에서는 《침경(鍼經)》으로 약칭하였다. 금대의 두걸이 지은 책으로, 1295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을 지은 두걸의 자는 한경이며 침술로 유명하였다. ↩

13. 《신간동인침구경(新刊銅人鍼灸經)》: 본문에서는 《동인(銅人)》으로 약칭하였다. 원대의 서적상이 《태평성혜방》 권99 <침경>의 전문을 초록해서 권1~6으로 나누고 여기에 따로 <침구금기> 1권을 덧붙여 간행한 책이다. ↩

14. 《침구광애서괄(鍼灸廣愛書括)》: 본문에서는 《광애(廣愛)》로 약칭하였다. 《광애서(廣愛書)》에서 전해진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추정되나 두 책 모두 유실되었다. 《광애서》는 명대의 진회(陳會)가 지은 12권으로 구성된 침구서이다. 《신응경(神應經)》도 진회가 《광애서》에서 간추린 것이므로 《신응경》을 통해 이 책의 구성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

15. 《사림광기(事林廣記)》: 본문에서는 《광기(廣記)》로 약칭하였다. 《사림광기(事林廣記)》는 송말 원초에 진(陳)의 원정(元靚)이 찬(撰)한 책으로 일종의 생활문화 백과사전이다. ↩

16. 《제인천금월령(齊人千金月令)》: 본문에서는 《월령(月令)》으로 약칭하였다. 손사막이 지었으며 현재 전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천금월령》에서 인용된 것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직접 인용하지 않고 《천금방》을 통해 재인용하였다. ↩

17. 《원구집(元龜集)》: 《책부원구(冊府元龜)》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원구집》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풍수, 택일 관련 서적들을 열거하면서 함께

언급된 책이다. ↩

18. 《용목총론(龍木總論)》: 대략 수·당대에 용수보살을 가탁하여 지은 편찬자 미상의 의서이다. 72종의 안과병증의 방론을 기술하였다. 《용목총론》을 비롯하여 그 아래로 열거된 총 6종의 서적에 수록된 침구금기법은 앞에 열거된 10권의 인용서들에 수록된 금기법들과 달리 소략하므로, 《침구택일편집》 본문에서 금기 내용별 상호 비교에 활용하지 않는 대신 책의 후반부에 해당 서적별로 특징적인 금기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

19. 《자생경(資生經)》: 송대의 왕집중(王執中)이 1165년에 지은 《침구자생경》이다. ↩

20. 《소씨병원론(巢氏病源論)》: 수나라 소원방(巢元方) 등이 610년에 편찬한 의서이다. ↩

21. 《이간방(易簡方)》: 송대에 왕석이 지은 책으로 대략 12세기 말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인방(三因方)》을 기초로 하였으며 상견병증에 대한 처방을 편집, 수록한 실용적인 임상 의서이다. ↩

22.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 《안과용목총론(眼科龍木總論)》과 마찬가지로 수·당대의 사람이 용수보살을 가탁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눈병의 원인 및 각종 눈병의 치료법을 기술하였고, 백내장을 침으로 벗겨 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원서는 실전되었으나 《의방유취(醫方類聚)》, 《의심방(醫心方)》 등에 인용된 내용을 통해 원서를 짐작해볼 수 있다. ↩

### 1.3. 본문

- 1.3.1. 침구 시술에 좋은 날 鍼灸吉日
- 1.3.2. 천의 길일 및 잡기일 보는 법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 1.3.3. 《천금방》의 침구금기법 《千金方》忌鍼灸法
- 1.3.4. 《천금방》의 사시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推四時人神忌
- 1.3.5. 《천금방》의 십이지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十二支人神忌
- 1.3.6. 《천금방》의 십간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十干人神忌
- 1.3.7. 《천금방》의 시간에 따른 인신 소재 금기 《千金方》逐時人神忌
- 1.3.8. 《천금방》의 일진에 따른 금기 《千金方》日辰忌
- 1.3.9. 《천금방》의 12부위 인신금기 《千金方》十二部人神忌.
- 1.3.10. 《천금방》의 침구 금기일 《千金方》鍼灸忌日
- 1.3.11. 《천금방》의 침구 금기법 《千金方》忌鍼灸法
- 1.3.12. 《동인수혈침구도경》의 사시별 태일신 금기 《腧穴經》四時太一神忌
- 1.3.13. 《동인수혈침구도경》의 태일인신(太一人神) 금기 《腧穴經》太一人神忌
- 1.3.14. 《천금방》의 9가지 부위 인신 금기 《千金方》九部人神忌
- 1.3.15. 《명당구경》의 고신법 《明堂經》尻神法
- 1.3.16. 《천금방》의 12부위에 따른 인신 금기법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 1.3.17. 《소씨병원론》의 나이에 따른 인신 금기 《病源論》年人神忌
- 1.3.18. 《용수보살안론》의 눈 치료 금기일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 1.3.19. 《소문영추경》의 자침금기 《素問靈樞經》凡刺之禁法

1.3.20. 《침경지남》의 잡기법 《鍼經》雜忌法

1.3.21. 《황제명당구경》의 하늘 기색 보는 법 《明堂經》候天色法

1.3.22. 《이간방》의 고향(膏肓)에 뜸 뜸 때 금기법 《易簡方》灸膏肓忌法

1.3.23. 《자생경》의 쑥뜸에 관한 잡설 《資生經》灸艾雜說法

1.3.24. 《자생경》의 뜸에 불 붙이는 법 《資生經》點艾火法

1.3.25. 장계유(莊季裕)의 고향(膏肓)에 뜸 뜸때의 금기법 莊季裕灸膏肓忌法

### 1.3.1. 침구 시술에 좋은 날 鍼灸吉日

出《銅人》·《元龜》·《廣記》

《동인침구경》·《원구집》·《사림광기》에 나온다.

丁卯、丁亥、庚午、庚子、甲戌、甲申、甲辰、丙子、丙申、丙午、丙辰、丙戌、壬午、壬辰、壬子、壬戌、辛卯、辛丑、戊戌、戊申、己亥、己未、乙巳、乙卯、癸丑.

정묘(丁卯)·정해(丁亥)·경오(庚午)·경자(庚子)·갑술(甲戌)·갑신(甲申)·갑진(甲辰)·병자(丙子)·병신(丙申)·병오(丙午)·병진(丙辰)·병술(丙戌)·임오(壬午)·임진(壬辰)·임자(壬子)·임술(壬戌)·신묘(辛卯)·신축(辛丑)·무술(戊戌)·무신(戊申)·기해(己亥)·기미(己未)·을사(乙巳)·을묘(乙卯)·계축(癸丑).

《元龜》有丁丑,《廣愛》亦有丁丑,而無丙辰、丙戌、壬戌、辛丑、己未、癸丑等六日. 又云天醫要安, 竝吉.

《원구집》에는 정축(丁丑)이 들어간다. 《침구광에서괄》<sup>23</sup>에도 정축(丁丑)이 들어가지만 병진(丙辰)·병술(丙戌)·임술(壬戌)·신축(辛丑)·기미(己未)·계축(癸丑)의 6일은 빠져있다. 또한 천의일(天醫日)<sup>24</sup>과 요안일(要安日)<sup>25</sup>이 모두 길하다고 하였다.

又《銅人》宜用除日、破日、開日, 天醫要安竝吉.

《동인침구경》에서는 제일(除日)·파일(破日)·개일(開日)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천의(天醫)와 요안(要安)일이 모두 길하다고 하였다.

又《銅人》鍼灸忌法, 丁丑及白虎、血支、血忌、月厭、月殺、月刑、死別、獨火, 凶.

《동인침구경》에서는 정축(丁丑)을 비롯하여 백호(白虎)·혈지(血支)·혈기(血忌)·월염(月厭)·월살(月殺)·월형(月刑)·사별(死別)·**독화(獨火)**<sup>26</sup>일을 흉하다고 보아 침구금기일로 정하였다.

<sup>23</sup>. **《침구광에서괄》**: 제목의 인용서에는 《광기(廣記)》로, 본문의 인용서에는 《광애(廣愛)》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분(副本) 상의 오류로 여겨진다. 나가걸이 복각한 《침구택일편집》은 이러한 오류들이 빈번하다. 《침구택일편집》이 《의방유취》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역시 어명으로 편찬된 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방유취》가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드문 매우 정밀한 편집이 돋보이는 책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오류들이 나가걸이 발견한 원본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며 오히려 부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잦은 오류는 나가걸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의 손상이 심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터이지만, 복각 과정에서 인용서와 일일이 비교, 대조하는 정밀한 작업을 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sup>24</sup>. **천의일(天醫日)**: 침구 및 복약의 길일이다. 이 날을 《천금방》에서는 “의사를 불러 병을 치료하기에 좋은 날(呼師治病吉)”, 《천금익방》에서는 “(이 날에) 의사를 찾거나 약을 구하고 의사를 부른다(尋醫取藥呼師)”고 하였다. 천의일 추산법은 아래의 “천의(天醫) 길일 및 잡기(雜忌)일 보는 법”을 참조. ↪

<sup>25</sup>. **요안일(要安日)**: 월건길신(月建吉神)에 나오는 내용이다. 매 달마다 해당 길신(吉神)이 있고 그 길신에 부합하는 간지(干支)를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에 따르면 요안일은 정월부터 순서대로 인, 신, 묘, 유, 진, 술, 사, 해, 오, 자, 축, 미일이다. 즉, 정월에는 인일(寅日)이 요안일이 되는데 복을 얻고 삶을 받는 길일로 여겼다. ↪

<sup>26</sup>. **독화(獨火)**: 불귀신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날을 말한다. ↪





1.3.2.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천의(天醫)의 길일 및 잡기(雜忌)일 보는 법

出《千金》、《膈穴》、《明堂》、《鍼經》、《聖惠》、《龍樹》。  
《천금방》、《동인수혈침구도경》、《명당구경》、《침경지남》、《태평성혜방》、《용수보살안론》에 나  
온다.

月 傍 通	正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 一
天 醫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血忌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午
血支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月厭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月忌	戌	戌	戌	丑	丑	丑	辰	辰	辰	未	未
大殺	戌	巳	午	未	寅	卯	辰	亥	子	丑	申
月殺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丑	戌	未

月 刑	巳	子	辰	申	午	丑	寅	酉	未	亥	卯
月 害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月 破											

별 길 흉 일	1	2	3	4	5	6	7	8	9	10	11
천 의 (天 醫)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혈 기 (血 忌)	축	미	인	신	묘	유	진	술	사	해	오
혈 지 (血 支)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대 살 (大 殺)	술	사	오	미	인	묘	진	해	자	축	신	
월 살	-	-	.	-.	-.	-	.	-.	-.	-	.	-.

(月 殺)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월 형 (月 刑)	사	자	진	신	오	축	인	유	미	해	묘





### 1.3.3. 《千金方》忌鍼灸法 《천금방》침구금기법

每月初六日、十五、十八、二十二、二十四、小盡日等, 療病令人長病. 諸方無此法.

매달 6일, 15일, 18일, 22일, 24일과 소진일(小盡日)<sup>27</sup> 등에 병자를 치료하면 병이 오래 간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又 戊午、甲午等日, 大忌刺出血鍼灸服藥. 【不出月凶<sup>28</sup>.】

무오(戊午)와 갑오(甲午)일에는 침으로 피를 빼거나 침구법을 행하고 약을 먹는 등의 치료를 크게 꺼린다. 【《천금익방》에는 월흉(月凶)이 나오지 않는다.】

甲辰、庚寅、乙卯、丙辰、辛巳、甲子、壬子、丁巳<sup>29</sup>、辛卯、癸卯、乙亥等日, 忌鍼灸.

갑진(甲辰)、경인(庚寅)、을묘(乙卯)、병진(丙辰)、신사(辛巳)、갑자(甲子)、임자(壬子)、정사(丁巳)、신묘(辛卯)、계묘(癸卯)、을해(乙亥)일에는 침과 뜸을 시술해서는 안 된다.

壬辰、甲辰、己巳、丙午、丁未等日. 【男忌鍼灸.】

임진(壬辰)、갑진(甲辰)、기사(己巳)、병오(丙午)、정미(丁未)일이다. 【남자에게 침과 뜸을 시술해서는 안 된다.】

甲寅、乙卯、乙酉、乙巳、丁巳等日. 【女忌鍼灸.】諸方無此法.

갑인(甲寅)、을묘(乙卯)、을유(乙酉)、을사(乙巳)、정사(丁巳)일이다. 【여자에게 침과 뜸을 시술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又 五辰、五酉、五未, 及八節先後各一日, 凶. 素問云, 前後各五日. 諸方無此法.

오진(五辰)、오유(五酉)、오미(五未)일 및 팔절기의 앞뒤 각 하루씩은 모두 흉일이다. 《소문(素問)》에는 앞뒤 각 5일로 나온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又 甲乙日忌寅時頭. 丙丁日忌辰時耳. 戊己日忌午時髮. 庚辛日忌申時【關文】. 壬癸日忌酉時<sup>30</sup>.

갑을일(甲乙日) 인시(寅時)에는 머리부위 치료를 금한다. 병정일(丙丁日) 진시(辰時)에는 귀 치료를 금한다. 무기일(戊己日)일 오시(午時)에는 터럭 있는 부위를 금한다. 경신일(庚辛日) 신시(申時)에는 【**궐문(關文)**<sup>31</sup>】 금한다. 임계일(壬癸日) 유시(酉時)에는 발을 금한다.

### 1.3.3.1. 又 推行年<sup>32</sup>醫法. 그 해의 십이지(十二支) 배속에 따른 천의일(天醫日) 보는 법

【橫看，假如子年卯日，他皆倣此.】

【아래의 나열된 순서대로 보는데, 예를 들어 자년(子年)에는 묘일(卯日)이 천의일(天醫日)이며 나머지도 이와 같이 대입한다.】

年至,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연지(年至):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天醫, 卯 戌 子 未 酉 亥 辰 寅 巳 午 丑 申. 諸方無此法.

천의(天醫):묘 술 자 미 유 해 진 인 사 오 축 신

### 1.3.3.2. 又 求歲天醫法. 그 해의 태세(太歲)<sup>33</sup>에 따라 천의일(天醫日) 보는 법

常以傳送, 加太歲順數, 至太一下, 爲天醫. 諸方無此法.

항상 전송(傳送)으로 하되 간지의 순환하는 수에 더하여 태일(太一)이 아래에 있으면 천의일(天醫日)이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 1.3.3.3 又 求月天醫法. 매달의 천의일(天醫日) 보는 법

陽月以大吉, 陰月以小吉. 加月建, 功曹下爲鬼道, 傳送下爲天醫. 諸方無此法.

양월(陽月)에는 매우 길하고, 음월(陰月)에는 조금 길하다. 그 달의 간지인 월건(月建)에 가하여 공조(功曹)가 아래에 있으면 귀도(鬼道)이고, 전송(傳送)이 아래에 있으면 천의일(天醫日)이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 1.4.4.4 又 鍼灸宜忌法. 침구에서 금기로 따라야 할 것

木命人, 行年在木, 則不宜鍼, 及服青藥.

목명인(木命人)<sup>34</sup>이 목의 해를 만나면 침을 맞거나 청약(靑藥)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火命人, 行年在火, 則不宜汗, 及服赤藥.

화명인(火命人)이 화의 해를 만나면 땀을 내거나 적약(赤藥)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土命人, 行年在土, 則不宜吐, 及服黃藥.

토명인(土命人)이 토의 해를 만나면 토법(吐法)을 쓰거나 황약(黃藥)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金命人, 行年在金, 則不宜灸, 及服白藥.

금명인(金命人)이 금의 해를 만나면 뜸을 뜨거나 백약(白藥)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水命人, 行年在水, 則不宜下, 及服黑藥.

수명인(水命人)이 수의 해를 만나면 하법(下法)을 쓰거나 흑약(黑藥)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凡醫者不知此法, 下手即困. 若遇年命厄會深者, 下手即死. 諸方無此法.

의사된 이가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선불리 손을 댄다면 곤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본명(本命)에 따라 액운이 심한 해를 만난 사람을 함부로 치료하면 죽는다. 다른 방서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

27. 소진일(小盡日): 음력으로 29일을 말한다. ↩

28. 不出月凶: '不出月凶' 앞에 '千金翼方'이 생략되어 있다.《천금방》 ↩

29. 壬子、丁巳: 《천금방》 원문에는 임자(壬子)와 정사(丁巳) 사이에 갑오(甲午)와 병진(丙辰)이 있으나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다. ↩

30. 壬癸日忌酉時: '壬癸日忌酉時' 앞에 '足'이 생략되어 있다.《천금방》 ↩

31. 關文(關文): 《천금방》 원문에도 해당 글자가 빠진 關文이다. ↩

32. 推行年: '推行年' 앞에 '天'이 빠져 있다.《천금방》 ↩

33. 태세(太歲): 간지(干支)를 말한다. ↩

34. 목명인(木命人): 출생한 해의 연지(年支)를 본명(本命)이라 하는데, 연지의 오행에 따라 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을묘(乙卯)의 해에 태어났다면 묘목(卯木)이 본명(本命)이므로 목명인(木命人)이 된다. ↩

**1.3.4. 《千金方》推四時人神忌 《천금방(千金方)》에 수록된 사시(四時)에 따른 인신(人神) 소재 금기**

《明堂》·《鍼經》·《聖惠》·《銅人》·《元龜》·《廣記》同.

《명당구경》·《침경지남》·《태평성혜방》·《동인침구경》·《원구집》·《사림광기》가 동일하다.

春左脇, 夏臍, 秋右脇, 冬腰.

봄에는 인신(人神)이 왼쪽 옆구리에 있고, 여름에는 배꼽에 있으며, 가을에는 오른쪽 옆구리에 있고, 겨울에는 허리에 있다.

### 1.3.5. 《千金方》十二支人神忌 《천금방(千金方)》에 수록된 십이지(十二支)에 따른 인신(人神) 소재 금기

《鍼經》·《銅人》·《廣記》·《元龜》.

《침경지남》·《동인침구경》·《사림광기》·《원구집》.

子日目. 諸經同.

자일(子日)에는 인신(人神)이 눈에 있다. 모든 의서가 동일하다.

丑日耳. 《鍼經》同, 《銅人》腰耳. 《廣記》腰, 《元龜》同.

축일(丑日)에는 귀에 있다. 《침경지남》은 이와 같고 《동인침구경》에는 허리와 귀로 되어 있다. 《사림광기》에는 허리로 되어 있고 《원구집》도 같다.

寅日口. 《外臺》胸面. 《銅人》胸, 《鍼經》·《廣記》·《元龜》同.

인일(寅日)에는 입에 있다. 《외대비요》에는 가슴과 얼굴로 되어 있다.<sup>35</sup> 《동인침구경》에는 가슴으로 되어 있으며 《침경지남》·《사림광기》·《원구집》도 이와 같다.

卯日鼻. 《外臺》脾, 《鍼經》齒. 《廣記》鼻脾, 《銅人》同. 《元龜》膝.

묘일(卯日)에는 코에 있다. 《외대비요》에는 비장(脾臟), 《침경지남》에는 치아로 나온다. 《사림광기》에는 코와 비장(脾臟)으로 되어 있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sup>36</sup> 《원구집》에서는 무릎이라 했다.

辰日腰. 《鍼經》·《銅人》同. 《廣記》足, 《元龜》膝.

진일(辰日)에는 허리에 있다. 《침경지남》과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사림광기》에는 발, 《원구집》에는 무릎으로 되어 있다.

巳日手. 《鍼經》·《銅人》·《廣記》·《元龜》同, 《外臺》頭口.

사일(巳日)에는 손에 있다. 《침경지남》·《동인침구경》·《사림광기》·《원구집》은 이와 동일하다. 《외대비요》에는 머리와 입으로 되어 있다.

午日心. 諸經同.

오일(午日)에는 심장에 있다. 모든 의서가 동일하다.

未日足. 《鍼經》同, 《外臺》足心. 《廣記》頭手, 《銅人》同. 《元龜》手.

미일(未日)에는 발에 있다. 《침경지남》은 이와 같고 《외대비요》는 족심(足心)이라 하였다. 《사림광기》에는 머리와 손으로 되어 있으며,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원구집》은 손이라 하였다.

申日頭. 《鍼經》·《元龜》同. 《廣記》頭背, 《銅人》同. 《外臺》肩.

신일(申日)에는 머리에 있다. 《침경지남》과 《원구집》은 이와 동일하다. 《사림광기》와 《동인침구경》에는 머리와 등으로 되어 있고 《외대비요》는 어깨라고 하였다.

酉日背. 《銅人》·《元龜》同. 《鍼經》膝, 《廣記》肩, 《外臺》脛.

유일(酉日)에는 등에 있다. 《동인침구경》과 《원구집》은 이와 동일하다. 《침경지남》에는 무릎, 《사림광기》에는 어깨, 《외대비요》에는 정강이로 나온다.

戌日項. 《鍼經》陰, 《外臺》咽喉. 《廣記》面, 《元龜》同. 《銅人》面頭.

술일(戌日)에는 뒷목에 있다. 《침경지남》에는 음부, 《외대비요》에는 인후로 나온다. 《사림광기》와 《원구집》에서는 얼굴이라 하였고, 《동인침구경》에서는 얼굴과 머리라 하였다.

亥日頂. 《銅人》頭, 《元龜》同. 《鍼經》脛, 《廣記》頭項, 《外臺》臂脛.

해일(亥日)에는 정수리에 있다. 《동인침구경》과 《원구집》에서는 머리라 하였다. 《침경지남》에는 정강이, 《사림광기》에는 머리와 뒷목, 《외대비요》에는 팔과 정강이로 되어 있다.

35. 《외대비요》에는 ... 되어 있다. : 이 내용은 《외대비요》 원문이 아닌 《천금방》에 인용된 《외대비요》 내용이다. 《외대비요》 원문에는 이 내용이외에도 “丑日 在耳及腰”, “午日 在心腹”이 기재되어 있으나 《천금방》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도 빠져 있다. ↩

36. 《사림광기》에는 ... 이와 같다. : 《동인침구경》을 보면 묘일 항목에 “비장, 혹은 가슴에 있다(在脾一云胸)”고 되어 있으므로 《동인침구경》의 내용이 《사림광기》와 같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 ↩

### 1.3.6. 《千金方》十干人神忌 《천금방》에 수록된 십간(十干)에 따른 인신(人神) 소재 금기

《銅人》·《廣記》·《元龜》.

《동인침구경》·《사림광기》·《원구집》.

甲日頭. 諸經同.

갑일(甲日)에는 머리에 있다. 의서마다 동일하다.

乙日項. 《元龜》喉耳, 《銅人》同. 《廣記》.<sup>37</sup>

을일(乙日)에는 뒷목에 있다. 《원구집》에는 목구멍과 귀에 있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丙日肩臂. 《元龜》足肩心, 《廣記》·《銅人》同.

병일(丙日)에는 어깨와 팔에 있다. 《원구집》에는 발과 어깨, 심장에 있다고 하였고 《사림광기》와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sup>38</sup>

丁日胸脇. 《廣記》心. 《元龜》心背喉, 《銅人》同.

정일(丁日)에는 가슴과 옆구리에 있다. 《사림광기》에는 심장에 있다고 하였다. 《원구집》에는 심장, 등, 목구멍에 있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sup>39</sup>

戊日腹. 《廣記》·《元龜》同. 《銅人》腹脾.

무일(戊日)에는 배에 있다. 《사림광기》와 《원구집》도 이와 같다. 《동인침구경》에서는 배와 비장(脾臟)이라 하였다.

己日背. 《廣記》脾. 《元龜》腹脾, 《銅人》同.

기일(己日)에는 등에 있다. 《사림광기》에서는 비장(脾臟)이라 하였다. 《원구집》에서는 배와 비장(脾臟)이라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庚日<sup>40</sup> 膝. 《廣記》腰. 《元龜》肺腰, 《銅人》同.

경일(庚日)에는 무릎에 있다. 《사림광기》에서는 허리라 하였다. 《원구집》에서는 폐와 허리라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辛日<sup>41</sup> 脾. 《廣記》膝, 《銅人》同. 《元龜》股.

신일(辛日)에는 비장에 있다. 《사림광기》는 무릎이라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원구집》에서는 넓적다리라 하였다.

壬日腎. 《銅人》腎脛. 《元龜》脛, 《廣記》同.

임일(壬日)에는 신장에 있다. 《동인침구경》에서는 신장과 정강이라 하였다. 《원구집》에서는 정강이라 하였고 《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癸日足. 《廣記》同. 《元龜》手足, 《銅人》同.

계일(癸日)에는 발에 있다. 《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원구집》에서는 손과 발이라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sup>37</sup>. 乙日項 ... 《廣記》: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사림광기》에는 《천금방》, 《원구집》, 《동인침구경》과는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용문에서도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여기에는 글자가 누락되어 있다. 《사림광기》↩

<sup>38</sup>. 《원구집》에는 ... 같다. : 이 내용에 따르면 이 세 책에 실린 내용이 모두 발, 어깨, 심장으로 동일해야 한다. 《사림광기》의 원문은 확인하기 어려워 비교하지 못하였으나, 《동인침구경》의 경우 원문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비교는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9. 《원구집》에는 ... 이와 같다. : 여기에서도 《동인침구경》의 내용이 《원구집》과 같다고 하였지만 《동인침구경》에는 “背”로 되어 있다. ↩

40. 膝 : 肺의 오기이다. 《천금방》 ↩

41. 脾 : 脚의 오기이다. 《천금방》 ↩

### 1.3.7. 《千金方》逐時人神忌 《천금방》에 수록된 시간에 따른 인신(人神) 소재 금기<sup>42</sup>

《銅人》·《明堂》·《聖惠》·《廣記》·《元龜》·《龍木》.

《동인침구경》·《명당구경》·《태평성혜방》·《사림광기》·《원구집》·《용목총론》.

子時踝. 《銅人》·《明堂》·《龍木》·《聖惠》同. 《廣記》足, 《元龜》跌.

자시(子時)에는 발목(踝)에 있다. 《동인침구경》·《명당구경》·《용목총론》·《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사림광기》에서는 발이라 하였고 《원구집》에서는 발등이라 하였다.

丑時頭. 《聖惠》·《明堂》·《廣記》·《元龜》·《龍木》同. 《銅人》腰.

축시(丑時)에는 머리에 있다. 《태평성혜방》·《명당구경》·《사림광기》·《원구집》·《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동인침구경》은 허리로 되어 있다.

寅時目. 《廣記》·《元龜》·《銅人》同. 《聖惠》耳, 《明堂》·《龍木》同.

인시(寅時)에는 눈에 있다. 《사림광기》·《원구집》·《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은 귀에 있다고 하였으며 《명당구경》과 《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卯時面耳. 《外臺》項. 《聖惠》面, 《明堂》·《廣記》·《元龜》·《銅人》·《龍木》同.

묘시(卯時)에는 얼굴과 귀에 있다. 《외대비요》는 뒷목이라 하였다.<sup>43</sup> 《태평성혜방》은 얼굴이라 하였고, 《명당구경》·《사림광기》·《원구집》·《동인침구경》·《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辰時項口. 《外臺》面. 《銅人》頭, 《龍木》同. 《聖惠》項, 《明堂》·《廣記》·《元龜》同.

진시(辰時)에는 뒷목과 입에 있다. 《외대비요》에서는 얼굴에 있다고 하였다. 《동인침구경》에서는 머리에 있다고 하였고 《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뒷목이라 하였고, 《명당구경》·《사림광기》·《원구집》도 이와

같다.

巳時肩. 《外臺》乳, 《明堂》、《聖惠》、《龍木》同. 《銅人》手, 《元龜》、《廣記》同.

사시(巳時)에는 어깨에 있다. 《외대비요》는 유방에 있다고 하였고, 《명당구경》、《태평성혜방》、《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동인침구경》에서는 손에 있다고 하였고 《원구집》、《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午時胸脇. 《聖惠》胸, 《明堂》、《廣記》、《元龜》、《銅人》、《龍木》同.

오시(午時)에는 가슴과 옆구리에 있다. 《태평성혜방》은 가슴에 있다고 하였고, 《명당구경》、《사림광기》、《원구집》、《동인침구경》、《용목총론》이 모두 이와 같다.

未時腹. 諸經同.

미시(未時)에는 배에 있다. 모든 의서가 이와 같다.

申時心. 諸經同.

신시(申時)에는 심장에 있다. 모든 의서가 이와 같다.

酉時背脾. 《明堂》背, 《銅人》、《聖惠》、《廣記》、《元龜》、《龍木》同.

유시(酉時)에는 등과 비장(脾臟)에 있다. 《명당구경》은 등에 있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태평성혜방》、《사림광기》、《원구집》、《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戌時腰陰. 《明堂》腰, 《銅人》、《聖惠》、《廣記》、《元龜》、《龍木》同.

술시(戌時)에는 허리와 음부에 있다. 《명당구경》에는 허리로 되어 있고, 《동인침구경》、《태평성혜방》、《사림광기》、《원구집》、《용목총론》도 이와 같다.<sup>44</sup>

亥時股. 諸經同, 《元龜》肱.

해시(亥時)에는 넓적다리에 있다. 다른 의서들은 이와 동일하나 《원구집》에는 팔뚝으로 되어 있다.

42. 《천금방》에 ... 소재 금기 : 소재 금기를 수록하였는데, 다섯 종류는 《천금방》에서 인용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소씨병원론》에서 인용하였다. 《천금방》에서 인용한 인신 소재 금기는 사시인신기(四時人神忌), 십이지인신기(十二支人神忌), 십간인신기(十干人神忌), 축시인신기(逐時人神忌), 십이부인신기(十二部人神忌)인데, 인신(人神)이 인체 각 부위를 순환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 규율에 따라 금기를 정해 놓은 것이다. 《소씨병원론》에서 인용한 인신 소재 금기는 나이에 따른 인신 소재 부위를 기록하였는데, 다른 인신 금기와는 달리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

43. 묘시(卯時)에는 ... 하였다 : 이 내용 역시 앞에 인용된 《외대비요》와 마찬가지로 《천금방》에서 재인용하였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유시(酉時) 항목의 경우, 《천금방》 원문에는 《외대비요》에는 슬(膝)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

44. 술시(戌時)에는 ... 이와 같다 : 이 내용과 달리 《동인침구경》에는 “項”으로 되어 있다. ↩

### 1.3.8. 《千金方》日辰忌《천금방(千金方)》에 수록된 일진(日辰)에 따른 금기

《明堂》·《銅人》·《腧穴》·《鍼經》·《聖惠》·《月令》·《廣愛》·《元龜》·《廣記》·《龍木》.

《명당구경》·《동인침구경》·《동인수혈침구도경》·《침경지남》·《태평성혜방》·《천금월령》·《침구광에서팔》·《원구집》·《사림광기》·《용목총론》.

初一日足大指.《聖惠》·《廣愛》·《元龜》·《月令》·《廣記》·《龍木》同.《明堂》大指.《腧穴》足大指厥陰分刺之發跗腫,《鍼經》·《銅人》同.

1일에는 엄지발가락에 있다.《태평성혜방》·《침구광에서팔》·《원구집》·《천금월령》·《사림광기》·《용목총론》은 이와 같다.《명당구경》에서는 엄지(大指)라고 하였다.《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엄지발가락의 꺾음부위에 침을 놓으면 발등이 붓게 된다고 하였고《침경지남》과《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二日外踝.《聖惠》·《廣愛》·《元龜》·《月令》·《廣記》·《龍木》·《明堂》同.《腧穴》外踝少陽分刺之筋經緩,《鍼經》·《銅人》同.

2일에는 발목 바깥쪽에 있다.《태평성혜방》·《침구광에서팔》·《원구집》·《천금월령》·《사림광기》·《용목총론》·《명당구경》이 이와 같다.《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목 바깥쪽의 소양경 부위에 침을 찌르면 근육과 경락이 늘어진다고 하였으며《침경지남》과《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三日股內.《明堂》·《聖惠》·《廣愛》·《廣記》·《龍木》同.《元龜》肱內,《月令》同.《腧穴》股少陰分刺之少腹痛,《鍼經》·《銅人》同.

3일에는 넓적다리 안쪽에 있다.《명당구경》·《태평성혜방》·《침구광에서팔》·《사림광기》·《용목총론》은 이와 같다.《원구집》에서는 팔뚝의 안쪽이라고 하였고《천금월령》도 이와 같다.《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넓적다리 안쪽의 소음부위에 침을 찌르면 소복통이 있다고 하였고,《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四日腰. 諸經同. 《腧穴》腰太陽分刺灸腰痺無力, 《鍼經》·《銅人》同.

4일에는 허리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는 허리의 태양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허리가 굽고 힘이 없어진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五日口舌咽懸嚢. 《廣記》·《龍木》同. 《聖惠》口舌, 《明堂》同. 《廣愛》口罅. 《元龜》口, 《月令》同. 《腧穴》口太陰分刺灸舌強, 《鍼經》·《銅人》同.

5일에는 입과 혀, 목구멍과 목젖에 있다. 《사림광기》·《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입과 혀라 하였고, 《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침구광애서괄》에서는 입 안이라 하였다. 《원구집》에서는 입이라 하였고, 《천금월령》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입의 태음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혀가 굳어진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六日足小指. 《廣記》·《龍木》同. 《月令》手小指, 《外臺》同. 《聖惠》兩手, 《廣愛》·《元龜》·《明堂》同. 《腧穴》手陽明分刺灸咽喉不利, 《鍼經》同, 又云足小指. 《銅人》太陰手陽明分鍼之咽門不開.

6일에는 새끼발가락(足小指)에 있다. 《사림광기》·《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천금월령》에서는 새끼손가락이라 하였고 《외대비요》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양손이라 하였고, 《침구광애서괄》·《원구집》·《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손의 양명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인후가 붓거나 아프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도 이와 같으나 새끼발가락이 추가되어 있다. 《동인침구경》에는 태음경과 손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목구멍이 막힌다고 하였다.

初七日內踝. 諸經同. 《腧穴》內踝少陰分刺灸陰經筋急, 《鍼經》·《銅人》同.

7일에는 발목 안쪽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목 안쪽의 소음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음경(陰經)의 근육이 오그라든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八日足腕. 諸經同. 《月令》腕, 《元龜》同. 《腧穴》手腕太陽分刺灸腕不收, 《鍼經》·《銅人》同.

8일에는 발목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천금월령》·《원구집》에는 (손발의 구분 없이) 완(腕)으로 되어 있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는 손목(手腕)의 태양경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손목을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침경지남》·《동인침구경》의 내용도 이와 같다.

初九日尻. 《聖惠》·《元龜》·《龍木》·《明堂》同. 《月令》尻尾, 《廣記》同. 《廣愛》尻臀. 《腧穴》尻厥陰分刺灸生疾結, 《鍼經》·《銅人》同.

9일에는 엉덩이뼈에 있다. 《태평성혜방》·《원구집》·《용목총론》·《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천금월령》에서는 엉덩이뼈와 꼬리뼈라 하였고 《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침구광애서괄》은 엉덩이뼈와 엉덩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엉덩이뼈의 궤음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맏히는 병이 생긴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初十日背腰. 諸經同. 《月令》背, 《腧穴》背腰太陽分刺灸腰背無力. 《鍼經》腰背僂, 《銅人》同.

10일에는 등과 허리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천금월령》에서는 등이라 하였고,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등과 허리의 태양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쓰면 허리와 등에 힘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침경지남》에서는 허리와 등이 굽어진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一日鼻柱. 諸經同. 《廣愛》鼻, 《千金翼》眉. 《腧穴》鼻柱陽明分刺灸齒面腫, 《鍼經》·《銅人》同.

11일에는 콧날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침구광애서괄》에서는 코, 《천금익방》에서는 눈썹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콧날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잇몸<sup>45</sup>과 얼굴이 붓는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二日髮際. 諸經同. 《腧穴》髮際少陽分刺之令耳不聽, 《鍼經》令耳重聽, 《銅人》同.

12일에는 발제(髮際)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제의 소양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침경지남》에서는 소리가 중복해서 들린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三日牙齒. 諸經同. 《腧穴》牙齒少陰分刺灸氣塞<sup>46</sup>, 《鍼經》·《銅人》同.

13일에는 치아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치아의 소음경 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뜸 경우 기운이 막힌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四日胃脘. 諸經同. 《腧穴》胃脘陽明分刺之氣脹, 《銅人》同. 《鍼經》刺之氣腫.

14일에는 위완(胃脘)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위완과 장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기창(氣脹)이 생긴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침경지남》에서는 침을 놓을 경우 기종(氣腫)이 된다고 하였다.

十五日遍身. 諸經同. 《腧穴》遍身不補不瀉刺灸大忌, 《鍼經》·《銅人》同.

15일에는 몸에 두루 존재한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몸 전체에 걸쳐 보사(補瀉)를 모두 금하며 침과 뜸을 크게 꺼린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六日胸乳. 《龍木》·《廣記》同. 《聖惠》胸, 《廣愛》·《元龜》同. 《月令》唇, 《明堂》胃. 《腧穴》胸太陽分【《銅人》作太陰分】刺之氣逆息, 《鍼經》同.

16일에는 가슴과 유방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가슴에 있다고 하였고 《침구광애서팔》·《원구집》도 이와 같다. 《천금월령》에서는 입술이라 하였고 《명당구경》에서는 위라고 하였다. 《동인



수혈침구도경》에서는 가슴의 태양경 부위【《동인침구경》에는 태음경 부위로 되어 있다.】에 침을 놓으면 숨이 치받쳐 오른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十七日氣衝. 諸經同. 《千金翼》氣衝及脇. 《腧穴》氣衝陽明分刺之難息, 《鍼經》、《銅人》同.

17일에는 기충혈(氣衝穴)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천금익방》에서는 기충혈에서 옆구리까지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기충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을 경우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十八日腹內. 《龍木》、《廣記》同. 《廣愛》股. 《聖惠》股內, 《月令》、《明堂》同. 《元龜》肱內, 《腧穴》股少陰分【《銅人》作股內少陰分, 《鍼經》同.】刺之引陰器痛<sup>47</sup>.

18일에는 배속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침구광에서괄》에서는 넓적다리라 하였다. 《태평성혜방》에서는 넓적다리 안쪽이라고 하였고 《천금월령》·《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원구집》에서는 팔뚝의 안쪽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넓적다리의 소음경 부위【《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넓적다리 안쪽의 소음경 부위라 하였고 《침경지남》도 이와 같다.】에 침을 놓으면 음부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였다.

十九日足趺. 《龍木》、《廣愛》、《廣記》同. 《聖惠》足, 《元龜》、《月令》、《明堂》同. 《腧穴》足陽明分刺灸發腫, 《銅人》同. 《鍼經》足趺刺灸發腫, 《銅人》同<sup>48</sup>

19일에는 발등에 있다. 《용목총론》·《침구광에서괄》·《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발이라고 하였고, 《원구집》·《천금월령》·《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붓는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침경지남》에서는 발등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붓는다고 하였다.

二十日膝下. 《龍木》·《廣記》同. 《聖惠》內踝, 《廣愛》·《元龜》·《明堂》同. 《月令》足踝. 《腧穴》內踝少陰分刺之經筋【《銅人》作膝】攣, 《鍼經》同.

20일에는 무릎 아래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는 이와 동일하다. 《태평 성혜방》에서는 발목의 안쪽이라고 하였으며 《침구광애서괘》·《원구집》·《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천금월령》에서는 발목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목 안쪽의 소음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경근(經筋)【《동인침구경》에서는 무릎이라고 하였다.】에 경련이 생긴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二十一日手小指. 諸經同. 《月令》足小指. 《腧穴》手小指太陽分刺之手不仁, 《鍼經》·《銅人》同.

21일에는 새끼손가락에 있다. 제반 의서가 동일하나 《천금월령》에서는 새끼 발가락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새끼손가락의 태양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손이 마비된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二十二日腹肚<sup>49</sup>. 《龍木》·《廣記》同. 《聖惠》外踝, 《廣愛》同. 《元龜》胸目下, 《月令》目下, 《明堂》內踝. 《腧穴》外踝少陽分刺之經筋緩, 《銅人》·《鍼經》同.

22일에는 복두(腹肚)<sup>50</sup>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태평 성혜방》에서는 발목의 바깥쪽이라고 하였고, 《침구광애서괘》도 이와 같다. 《원구집》에서는 가슴과 눈 밑이라고 하였고, 《천금월령》에서는 눈 밑이라고 하였다. 《명당구경》에서는 발목의 안쪽이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목 바깥쪽의 소양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경근(經筋)이 늘어진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二十三日肝腧. 《聖惠》·《龍木》同. 《廣記》肝, 《月令》臂, 《明堂》肝及足, 《廣愛》·《元龜》同. 《腧穴》肝足厥陰分刺之發轉筋, 《銅人》·《鍼經》同.

23일에는 간수혈(肝腧穴)에 있다. 《태평성혜방》·《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사림광기》에서는 간(肝), 《천금월령》에서는 팔이라 하였다. 《명당구경》에서는 간과 발이라고 하였고, 《침구광에서팔》·《원구집》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간과 발의 꺾음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근육에 쥐가 난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二十四日手陽明兩脇. 《月令》·《龍木》同. 《聖惠》手陽明, 《元龜》·《廣記》·《明堂》同. 《廣愛》手. 《腧穴》手陽明分刺灸咽中不利, 《鍼經》·《銅人》同.

24일에는 수양명경의 양쪽 옆구리부위에 있다. 《천금월령》·《용목총론》은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수양명경이라 하였고, 《원구집》·《사림광기》·《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침구광에서팔》에서는 손에 있다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손의 양명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목구멍이 편치 않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二十五日足陽明. 諸經同. 《腧穴》足陽明分刺灸之胃氣脹, 《鍼經》·《銅人》同.

25일에는 족양명경 부위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발의 양명경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위장의 기운이 창만하게 된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二十六日手足. 《龍木》·《廣記》同. 《聖惠》胸, 《廣愛》·《元龜》·《月令》·《明堂》同. 《腧穴》胸太陰分【《銅人》作太陽分】刺灸喘嗽, 《鍼經》同.

26일에는 손과 발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가슴에 있다고 하였고, 《침구광에서팔》·《원구집》·《천금월령》·《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가슴의 태음경 부위【《동인침구경》에는 태양경으로 되어 있다.】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난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二十七日膝. 諸經同. 《腧穴》膝陽明分刺之足脛厥逆, 《鍼經》·《銅人》同.

27일에는 무릎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무릎의 양명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발과 정강이가 싸늘해진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二十八日陰. 諸經同. 《腧穴》陰少陰分刺之少腹急痛, 《鍼經》·《銅人》同.

28일에는 음부에 있다. 제반 의서가 이와 같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음부의 소음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아랫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고 하였고, 《침경지남》·《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二十九日膝脛顛顙. 《龍木》同. 《聖惠》膝脛, 《明堂》·《元龜》·《廣記》同. 《廣愛》膝脛, 《月令》腦, 《腧穴》膝脛厥陰分刺之筋痿少力, 《銅人》·《鍼經》同.

29일에는 무릎과 정강이, **섭유혈(顛顙穴)**<sup>51</sup>에 있다. 《용목총론》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무릎과 정강이라고 하였고, 《명당구경》·《원구집》·《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침구광애서괄》에서는 무릎 및 정강이 윗부분이라 하였고, 《천금월령》에서는 뇌라고 하였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무릎과 정강이의 꺾음경 부위에 침을 놓으면 근육이 마르고 힘이 없어진다고 하였고, 《동인침구경》·《침경지남》도 이와 같다.

三十日關元下至足心. 《龍木》·《廣記》同. 《聖惠》足趺, 《廣愛》·《元龜》·《月令》·《外臺》·《明堂》同. 《腧穴》陽明分月空亡不瀉禁不治, 《鍼經》足趺此日忌鍼灸, 《銅人》足趺陽明分月空亡<sup>52</sup>不瀉忌鍼.

30일에는 관원의 아래 및 족장심(足掌心)에 있다. 《용목총론》·《사림광기》도 이와 같다. 《태평성혜방》에서는 발등이라 하였고, 《침구광애서괄》·《원구집》·《천금월령》·《외대비요》<sup>53</sup>·《명당구경》도 이와 같다.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는 양명경 부위를 **월공망**<sup>54</sup>에 사해서는 안 되며 치료를 금한다고 하였고, 《침경지남》에서는 이 날에 발등에 침이나 뜸을 놓지 말라고 하였으며, 《동인침구경》에서는 발등의 양명경 부위를 월공망에 사해서는 안 되며 침을 놓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다.

45. **잇몸** : 원문에는 치(齒)라고 되어 있으나 침뜸의 금기를 어길 경우 붓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치아가 아닌 치은(齒齦), 즉 잇몸을 말한다고 보았다. ↩

46. **塞** : 《동인수혈침구도경》과 동일하다고 한 《침경지남》과 《동인침구경》에는 “塞”자가 들어 있으므로,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에 준하여 첨가하였다. ↩

47. **陰器痛** : 《동인수혈침구도경》에는 “陰器痛”으로 나오지만, 《동인침구경》에는 “陰氣痛”으로 되어 있다. 《동인수혈침구도경》과 《동인침구경》을 비교하면서 “股內”와 “股”의 차이를 살필 만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器”와 “氣”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역시 부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여겨진다. ↩

48. **《銅人》同** : 이 문장 안에 두 번 들어가 있다. 《동인침구경》에는 “足陽明分針之發腫”으로 《동인수혈침구도경》과 동일하므로 두 번째가 연문이다. ↩

49. **腹肚** = 伏兔 《천금방》 ↩

50. **복두(腹肚)** : 두복(肚腹), 즉 위장이 있는 윗배를 말한다. ↩

51. **섭유혈(顳顬穴)** : 태양혈(太陽穴)이다. ↩

52. **月空亡** : 《사고전서(四庫全書)》의 《동인침구경》에는 “日空亡”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여기에서 기록한 대로 “月空亡”이 적절해 보인다. 다른 판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

53. **《외대비요》** : 본 절에서 《외대비요》는 30일에만 인용되어 있다. 제목에 덧붙인 인용서에는 빠져 있는데, 이는 《천금방》에서 재인용한 때문이다. ↩

54. **월공망** : 공망(空亡)은 간(干)이 지(支)와 화합하지 않고 고립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공망은 간지로 정해지므로 연공망, 월공망, 일공

망, 시공망 모두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월공망만을 말하고 있다. ↩

### 1.3.9. 《千金方》十二部人神忌. 《천금방》에 수록된 12부위 인신금기<sup>55</sup>

不得犯其處殺人. 《明堂》·《聖惠》.

그 부위를 범하여서는 안 되니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당구경》·《태평성혜방》.

建日申時頭. 《外臺》足. 《明堂》足禁晡時, 《聖惠》同.

건일(建日)의 신시(오후3~5시)에는 머리에 있다. 《외대비요》에는 발이라고 되어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늦은 오후에 발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除日酉時膝. 《外臺》眼. 《明堂》眼禁日入, 《聖惠》同.

제일(除日)의 유시(오후5~7시)에는 무릎에 있다. 《외대비요》에는 눈이라고 되어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해질 무렵에 눈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滿日戌時腹. 《明堂》腹禁黃昏, 《聖惠》同.

만일(滿日)의 술시(오후7~9시)에는 배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어둑어둑 해질 때 배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平日亥時腰背. 《明堂》背禁人定, 《聖惠》同.

평일(平日)의 해시(오후9~11시)에는 허리와 등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늦은 밤에 등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定日子時心. 《明堂》心禁夜半, 《聖惠》同.

정일(定日)의 자시(오후11~오전1시)에는 심장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한밤중에 심장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執日丑時手. 《明堂》手禁鷄鳴, 《聖惠》同.

집일(執日)의 축시(오전1~3시)에는 손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첫닭이 울 무렵에 손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破日寅時口. 《明堂》手, 《聖惠》口禁平朝.

파일(破日)의 인시(오전3~5시)에는 입에 있다. 《명당구경》에는 손으로 되어 있고 《태평성혜방》에서는 새벽에 입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다.

危日卯時鼻. 《明堂》鼻禁日出, 《聖惠》同.

위일(危日)의 묘시(오전5~7시)에는 코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해가 뜰 무렵에 코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成日辰時唇. 《明堂》唇禁食時, 《聖惠》同.

성일(成日)의 진시(오전7~9시)에는 입술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밥 먹는 시간에 입술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收日巳時足. 《外臺》頭, 《明堂》頭禁禺中, 《聖惠》同.

수일(收日)의 사시(오전9~11시)에는 발에 있다. 《외대비요》에는 머리로 되어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오전 10시 경에 머리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開日午時耳. 《明堂》、《聖惠》同.

개일(開日)의 오시(오전11~오후1시)에는 귀에 있다. 《명당구경》과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閉日未時目. 《明堂》目禁日昃, 《聖惠》同.

폐일(閉日)의 미시(오후1~3시)에는 눈에 있다. 《명당구경》에서는 오후 2시 경에 눈을 범하지 말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도 이와 같다.



<sup>55</sup>. **12부위 인신금기** : 이 방법은 일반적인 택일법 중 하나로 건일에서 폐일까지 12단계로 되어 있으며 건제(建除), 만평(滿平), 정집(定執), 파위(破危), 성수(成收), 개폐(開閉)로 두 단계씩 짝을 이룬다. 정하는 법은, 정월의 월건이 인(寅)이라면 인일(寅日)이 건일(建日)이 되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묘일(卯日)은 제일(除日), 진일(辰日)은 만일(滿日) 등의 순서로 이름이 붙게 된다. 12 단계를 모두 거치면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돌아간다. ↩

**1.3.10. 《千金方》鍼灸忌日 《천금방》에 수록된 침구 금기일**

男忌除, 女忌破. 《明堂》、《鍼經》、《聖惠》、《廣記》、《銅人》、《資生經》同.

남자는 제일(除日)을, 여자는 파일(破日)을 꺼린다. 《명당구경》、《침경지남》  
、《태평성혜방》、《사림광기》、《동인침구경》、《자생경》도 이와 같다.

男忌戊, 女忌己. 出《千金》、《鍼經》、《資生經》.

남자는 무일(戊日)을, 여자는 기일(己日)을 꺼린다. 《천금방》、《침경지남》、  
《자생경》에 나온다.

**1.3.11. 《千金方》忌鍼灸法 《천금방》에 수록된 침구 금기법**

立春春分脾. 立夏夏至肺. 立秋秋分肝. 立冬冬至心. 四季十八日腎. 諸方無此法.

입춘과 춘분에는 비(脾)를 치료하는 침구법을 금한다. 입하와 하지에는 폐(肺)를 치료하는 침구법을 금한다. 입추와 추분에는 간(肝)을 치료하는 침구법을 금한다. 입동과 동지에는 심(心)을 치료하는 침구법을 금한다. 사계에 해당하는 18일 동안은 신(腎)을 치료하는 침구법을 금한다. 다른 의서에는 이 내용이 없다.

**1.3.12. 《膻穴經》四時太一神忌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수록된 사시(四時)별 태일신(太一神) 금기**

《鍼經》·《銅人》·《元龜》同.

《침경지남》·《동인침구경》·《원구집》이 이와 같다.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왼발은 입춘에 응하고 날짜로는 무인(戊寅)과 기축(己丑)일이다.

左脇【《銅人》·《元龜》作胸.】應春分, 其日乙卯.

왼쪽 옆구리【《동인침구경》·《원구집》에는 가슴으로 되어 있다.】는 춘분에 응하고 날짜로는 을묘(乙卯)일이다.

左手應立夏, 其日戊辰己巳.

왼쪽 손은 입하에 응하고 날짜로는 무진(戊辰)과 기사(己巳)일이다.

頭首【《鍼經》作膺喉頭首.】應夏至, 其日丙午.

머리【《침경지남》에는 가슴과 목구멍, 머리로 되어 있다.】는 하지에 응하고 날짜로는 병오(丙午)일이다.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오른손은 입추에 응하고 날짜로는 무신(戊申)과 기미(己未)일이다.

右脇【《銅人》·《元龜》作胸.】應秋分, 其日辛酉.

오른쪽 옆구리【《동인침구경》·《원구집》에는 가슴으로 되어 있다.】는 추분에 응하고 날짜로는 신유(辛酉)일이다.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오른발은 입동에 응하고 날짜로는 무술(戊戌)과 기해(己亥)일이다.

腰尻下竅【《元龜》無腰字。】應冬至, 其日壬子.

허리와 꼬리뼈, 하규(下竅)【《원구집》에는 허리가 없다.】는 동지에 응하고 날짜로는 임자(壬子)일이다.

藏腑膈下應四季, 其日戊巳.

장부 및 횡격막 아래는 사계와 응하고 날짜로는 무사(戊巳)일이다.

1.3.13. 《腧穴經》太一人神忌 《동인수혈침구도경》의 태일인신(太一人神) 금기<sup>56</sup>

《鍼經》同.  
《침경지남》과 같다.

1.3.13.1. 冬至節 동지

一 日	十 日	十九 日	二十八 日	三十七 日	在腰尻下竅
二 日	十一 日	二十 日	二十九 日	三十八 日	在右肩臂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 日	三十九 日	在左脇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 日	在左肩臂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 日	在五藏六腑膈下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 日	在右脚足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 日	在右脇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 日	在左脚足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頭首喉膺
--------	---------	----------	----------	------	-------

1 일 <sup>57</sup>	10 일	19 일	28 일	37 일	허리,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2일	11 일	20 일	29 일	38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3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4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5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6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7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8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9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1.3.13.2. 立春節 입춘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左脚足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頭首喉膺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腰尻下竅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右肩臂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左脇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左肩臂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五藏六腑膈下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右脚足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右脇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2	11	20	29	38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일	일	일	일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1.3.13.3. 春分節 춘분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左脇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左肩臂

日	日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五藏六腑膈下
四日	十三日	二十二日	三十一日	四十日	在右脚足
五日	十四日	二十三日	三十二日	四十一日	在右脇
六日	十五日	二十四日	三十三日	四十二日	在左脚足
七日	十六日	二十五日	三十四日	四十三日	在頭首喉膺
八日	十七日	二十六日	三十五日	四十四日	在腰尻下竅
九日	十八日	二十七日	三十六日	四十五日	在右肩臂

1	10	19	28	37	왼쪽 옆구리에 있다.
일	일	일	일	일	
2	11	20	29	38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일	일	일	일	일	
3	12	21	30	39	오장육부와 횡격막 아래에 있다.
일	일	일	일	일	
4	13	22	31	40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일	일	일	일	일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 1.3.13.4.立夏節 입하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左肩臂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五藏六腑膈下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右脚足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右脇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左脚足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頭首喉膺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腰尻下竅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右肩臂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左脇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2 일	11 일	20 일	29 일	38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1.3.13.5. 夏至節 하지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頭首喉膺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腰尻下竅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右肩臂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左脇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左肩臂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五藏六腑膈下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右脚足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右脇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左脚足
--------	---------	----------	----------	------	------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2 일	11 일	20 일	29 일	38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 1.3.13.6. 立秋節 입추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右肩臂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左脇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左肩臂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五藏六腑膈下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右脚足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右脇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左脚足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頭首喉膺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腰尻下竅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2	11	20	29	38	

일	일	일	일	일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1.3.13.7. 秋分節 추분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右脇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左脚足
三	十二	二十一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頭首喉膺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腰尻下竅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右肩臂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左脇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左肩臂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五藏六腑膈下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右脚足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2 일	11 일	20 일	29 일	38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 1.3.13.8. 立冬節 입동

一 日	十日	十九日	二十八 日	三十七日	在右脚足
二 日	十一 日	二十日	二十九 日	三十八日	在右脇
三 日	十二 日	二十一 日	三十日	三十九日	在左脚足
四 日	十三 日	二十二 日	三十一 日	四十日	在頭首喉膺
五 日	十四 日	二十三 日	三十二 日	四十一日	在腰尻下竅

六 日	十五 日	二十四 日	三十三 日	四十二日	在右肩臂
七 日	十六 日	二十五 日	三十四 日	四十三日	在左脇
八 日	十七 日	二十六 日	三十五 日	四十四日	在左肩臂
九 日	十八 日	二十七 日	三十六 日	四十五日	在五藏六腑膈下

1 일	10 일	19 일	28 일	37 일	오른쪽 다리와 발에 있다.
2 일	11 일	20 일	29 일	38 일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3 일	12 일	21 일	30 일	39 일	왼쪽 다리와 발에 있다.
4 일	13 일	22 일	31 일	40 일	머리와 목구멍, 가슴에 있다.
5 일	14 일	23 일	32 일	41 일	허리와 꼬리뼈, 음호(陰戶)와 항문(肛門)에 있다.
6 일	15 일	24 일	33 일	42 일	오른쪽 어깨와 팔에 있다.
7 일	16 일	25 일	34 일	43 일	왼쪽 옆구리에 있다.

8 일	17 일	26 일	35 일	44 일	왼쪽 어깨와 팔에 있다.
9 일	18 일	27 일	36 일	45 일	오장육부 및 횡격막 아래에 있다.

<sup>56</sup>. 《동인수혈침구도경》의 태일인신(太一人神) 금기 : 《동의보감》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으나 입춘절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

<sup>57</sup>. 1일 : 여기에서 동지의 1일은 동지 당일을 말하며 이하의 절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당 절기 당일을 포함하여 추산한 날짜이므로 45일째까지 세어 나가게 되며 46일째 되는 날은 다음 절기의 1일이 된다. ↩

1.3.14. 《千金方》九部人神忌 《천금방》에 수록된 아홉 가지 부위의 인신(人神) 금기

《明堂》·《銅人》·《聖惠》·《元龜》同.  
《명당구경》·《동인침구경》·《태평성혜방》·《원구집》이 동일하다.

一	十	十九	二十八	三十七	四十六	五十五	六十四	七十三	八十二	臍 <sup>58</sup>
二	十一	二十	二十九	三十八	四十七	五十六	六十五	七十四	八十三	心
三	十二	二十一	三十	三十九	四十八	五十七	六十六	七十五	八十四	肘
四	十三	二十二	三十一	四十	四十九	五十八	六十七	七十六	八十五	咽
五	十四	二十三	三十二	四十一	五十	五十九	六十八	七十七	八十六	口
六	十五	二十四	三十三	四十二	五十一	六十	六十九	七十八	八十七	頭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七	六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十九	十八	脊
八	十七	二十六	三十五	四十四	五十三	六十二	七十一	八十	八十九	膝
九	十八	二十七	三十六	四十五	五十四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	九十	足

1 세	10 세	19 세	28 세	37 세	46 세	55 세	64 세	73 세	82 세	배꼽
2 세	11 세	20 세	29 세	38 세	47 세	56 세	65 세	74 세	83 세	심장
3 세	12 세	21 세	30 세	39 세	48 세	57 세	66 세	75 세	84 세	팔꿈치
4 세	13 세	22 세	31 세	40 세	49 세	58 세	67 세	76 세	85 세	목구멍
5 세	14 세	23 세	32 세	41 세	50 세	59 세	68 세	77 세	86 세	입
6 세	15 세	24 세	33 세	42 세	51 세	60 세	69 세	78 세	87 세	머리
7 세	16 세	25 세	34 세	43 세	52 세	61 세	70 세	79 세	88 세	척추

8 세	17 세	26 세	35 세	44 세	53 세	62 세	71 세	80 세	89 세	무릎
9 세	18 세	27 세	36 세	45 세	54 세	63 세	72 세	81 세	90 세	발

<sup>58</sup>. 臍: 본래 글자가 없는데《천금방》을 참조하여 적어놓았다. ↩

1.3.15. 《明堂經》屍神法 《명당구경》에 수록된 고신법(屍神法)<sup>59</sup>

《銅人》·《元龜》.  
《동인침구경》·《원구집》.

一	十	十九	二十八	三十七	四十六	五十五	六十四	七十三	八十二	踝【諸經同】
二	十一	二十	二十九	三十八	四十七	五十六	六十五	七十四	八十三	牙腩【《元龜》同, 《銅人》牙口.】
三	十二	二十一	三十	三十九	四十八	五十七	六十六	七十五	八十四	【頭口】乳【諸經同】
四	十三	二十二	三十一	四十	四十九	五十八	六十七	七十六	八十五	肩尾穹骨【《銅人》肩尻, 《元龜》同.】
五	十四	二十三	三十二	四十一	五十	五十九	六十八	七十七	八十六	【面背】目【諸經同】
六	十五	二十四	三十三	四十二	五十一	六十	六十九	七十八	八十七	手膊【諸經同】



七	十六	二十五	三十四	四十三	五十二	六十一	七十	七十九	八十八	腰項【諸經同】
八	十七	二十六	三十五	四十四	五十三	六十二	七十一	八十	八十九	膝肋【諸經同】
九	十八	二十七	三十六	四十五	五十四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	九十	肚肘脚【諸經同】

1 세	10 세	19 세	28 세	37 세	46 세	55 세	64 세	73 세	82 세	발목【각 의서가 동일하다.】
2 세	11 세	20 세	29 세	38 세	47 세	56 세	65 세	74 세	83 세	어금니와 장딴지【《원구집》은 동일하고 《동인침구경》에는 어금니와 입으로 되어 있다.】

3 세	12 세	21 세	30 세	39 세	48 세	57 세	66 세	75 세	84 세	【머리, 입】유방 【각 의서 가 동일 하다.】
4 세	13 세	22 세	31 세	40 세	49 세	58 세	67 세	76 세	85 세	어깨, 꼬 리뼈, 두 개골【《동 인침구 경》에는 어깨와 꼬리뼈로 되어 있 고 《원구 집》도 이 와 같다.】
5 세	14 세	23 세	32 세	41 세	50 세	59 세	68 세	77 세	86 세	【머리, 등】눈【각 의서가 동일하 다.】
6 세	15 세	24 세	33 세	42 세	51 세	60 세	69 세	78 세	87 세	손과 팔 뚝【각 의 서가 동 일하다.】
										허리와

7 세	16 세	25 세	34 세	43 세	52 세	61 세	70 세	79 세	88 세	뒷목【각 의서가 동일하 다.】
8 세	17 세	26 세	35 세	44 세	53 세	62 세	71 세	80 세	89 세	무릎과 갈비뼈 【각 의서 가 동일 하다.】
9 세	18 세	27 세	36 세	45 세	54 세	63 세	72 세	81 세	90 세	배, 팔꿈 치, 다리 【각 의서 가 동일 하다.】

59. **고신법(屍神法)**: 구궁고신금기(九宮屍神禁忌)라고도 한다. 침구택일법 중 비교적 후대에 등장한 방법이며 《황제명당구경》 내에 기재된 것이 고신금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고신금기법은 인신금기 중 바로 앞에서 다른 나이에 따른 부위별 인신금기인 구부행년인신(九部行年人神)과 유사하며 둘 다 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두 방법 모두 9년을 순환주기로 하여 한 살씩 올라가면서 신체 부위를 한 위치씩 이동하며 일주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신금기는 그 순행의 순서가 구궁의 차서를 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

1.3.16.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천금방》에 수록된 12부위에 따른 인신 금기법

《明堂》·《聖惠》·《銅人》·《元龜》.

《명당구경》·《태평성혜방》·《동인침구경》·《원구집》.

一	十三	二十五	三十七	四十九	六十一	七十三	八十五	心【《元龜》·《聖惠》· 《明堂》同,《銅人》頭 心.】
二	十四	二十六	三十八	五十	六十二	七十四	八十六	喉【諸經同】
三	十五	二十七	三十九	五十一	六十三	七十五	八十七	頭【《銅人》·《明堂》· 《聖惠》同,《元龜》項.】
四	十六	二十八	四十	五十二	六十四	七十六	八十八	肩【《元龜》同.《千金 翼》肩,《聖惠》·《銅 人》同,《明堂》頭.】
五	十七	二十九	四十一	五十三	六十五	七十七	八十九	背【《元龜》·《聖惠》· 《明堂》同,《銅人》脊.】
六	十八	三十	四十二	五十四	六十六	七十八	九十	腰【諸經同】
		三	四	五	六	七	九	

七	九	十一	十三	十五	十七	十九	十一	腹【諸經同】
八	二十	三十二	四十四	五十六	六十八	八十	九十二	項【《元龜》、《聖惠》、 《明堂》同,《銅人》項 手.】
九	二十一	三十三	四十五	五十七	六十九	八十一	九十三	足【諸經同】
十	二十二	三十四	四十六	五十八	七十	八十二	九十四	膝【諸經同】
十一	二十三	三十五	四十七	五十九	七十一	八十三	九十五	陰【諸經同】
十二	二十四	三十六	四十八	六十	七十二	八十四	九十六	股【《聖惠》、《明堂》、 《銅人》同,《元龜》肱.】

1	13	25	37	49	61	73	85	심장【《원구집》、《태평 성혜방》、《명당구경》 은 이와 같고,《동인침 구경》에는 머리와 심장 으로 되어 있다.】
2	14	26	38	50	62	74	86	목구멍【각 의서가 동일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하다.】
3 세	15 세	27 세	39 세	51 세	63 세	75 세	87 세	머리【《동인침구경》· 《명당구경》·《태평성 혜방》은 이와 같고,《원 구집》에는 뒷목으로 되 어 있다.】
4 세	16 세	28 세	40 세	52 세	64 세	76 세	88 세	눈썹【《원구집》은 이와 같다. {《천금익방》에서 는 어깨라고 하였고,; 《천금방》에 나오는 내 용이다.}《태평성혜방》 ·《동인침구경》도 이 와 같으며,《명당구경》 에는 머리로 되어 있 다.】
5 세	17 세	29 세	41 세	53 세	65 세	77 세	89 세	등【《원구집》·《태평성 혜방》·《명당구경》은 이와 같고,《동인침구 경》에는 척추로 되어 있다.】
6 세	18 세	30 세	42 세	54 세	66 세	78 세	90 세	허리【각 의서가 동일하 다.】
7 세	19 세	31 세	43 세	55 세	67 세	79 세	91 세	배【각 의서가 동일하 다.】
								뒷목【《원구집》·《태평

8 세	20 세	32 세	44 세	56 세	68 세	80 세	92 세	성혜방》·《명당구경》 은 이와 같고,《동인침 구경》에는 뒷목과 손으 로 되어 있다.】
9 세	21 세	33 세	45 세	57 세	69 세	81 세	93 세	발【각 의서가 동일하 다.】
10 세	22 세	34 세	46 세	58 세	70 세	82 세	94 세	무릎【각 의서가 동일하 다.】
11 세	23 세	35 세	47 세	59 세	71 세	83 세	95 세	음부【각 의서가 동일하 다.】
12 세	24 세	36 세	48 세	60 세	72 세	84 세	96 세	넓적다리【《태평성혜 방》·《명당구경》·《동 인침구경》은 이와 같 고,《원구집》에는 팔뚝 으로 되어 있다.】

1.3.17. 《病源論》年人神忌 《소씨병원론》에 수록된 나이에 따른 인신 금기<sup>60</sup>

諸方無此法.  
다른 의서에는 이 방법이 없다.

六、十八、二十四、四十、五十六、六十二、六十七、九十八	神在膊, 不可見血, 見血者必死.
九、二十五、三十三、四十九、五十七、六十、六十■、七十三、八十■、九十七	神在■, 不可見血, 見血者死. <sup>61</sup>
十一、十五、二十、三十一、三十二、四十六、五十九、六十三、七十五、九十一	神在尻尾, 不可見血, 見血者死.
十三、二十九、三十五、六十一、七十三、九十三	神在足, 不可見血, 見血者死.
十六、二十六、三十二、四十八、五十八、六十四、八十、九十六	神在脇, 不可見血, 見血者死.
十九、二十三、三十、三十五、三十九、五十一、五十五、六十一、八十七、九十九	神在兩耳下, 不可見血, 見血者死.
二十五、三十一、六十、九十五、百	神皆在額, 不可見血, 見血者死.

6세、18세、24세、40세、56세、62세、67세、98세	인신이 팔에 있으며 피를 보아서는 안 되며, 피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
9세、25세、33세、49세、57세、	인신이 ■에 있으며 피를 보아서는 안



60세 · 6■세 · 73세 · 8■세 · 97세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11세 · 15세 · 20세 · 31세 · 32세 · 46세 · 59세 · 63세 · 75세 · 91세	인신이 꼬리뼈에 있으며 피를 보아서 는 안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13세 · 29세 · 35세 · 61세 · 73세 · 93세	인신이 발에 있으며 피를 보아서 는 안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16세 · 26세 · 32세 · 48세 · 58세 · 64세 · 80세 · 96세	인신이 옆구리에 있으며 피를 보아서 는 안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19세 · 23세 · 30세 · 35세 · 39세 · 51세 · 55세 · 61세 · 87세 · 99세	인신이 양쪽 귀 아래에 있으며 피를 보 아서는 안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25세 · 31세 · 60세 · 95세 · 100세	인신이 모두 이마에 있으며 피를 보아 서는 안 되며, 피를 보면 죽는다.

60. 《소씨병원론》... 인신 금기 : 나이에 따라 인신이 순환하며 소재 부위가 달라지는데, 해당 부위를 만난 나이에는 그 부위를 자침 등으로 출혈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인신 소재 금기와는 달리 나이에 일정한 순환 규칙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 31, 32, 60, 61, 73세 등이 모두 두 차례씩 기록되어 있다. 이 금기법은 《제병원후론》에서 찾을 수 없고 다른 의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

61. 神在■, 不可見血, 見血者死 : 이 항목에서는 세 글자 가량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침구택일편집》의 본문이 아닌 위쪽 여백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 본 번역에서 참고로 삼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http://jisik.kiom.re.kr>)의 한의고전명저총서 중 해당 부분의 원문이미지 자료는 상단의 첫줄이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三十三과 五十七에 들어있는 “十”자도 첫줄에 들어있는 글자라 이미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빠져있

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에서는 추가하였다. ↩

**1.3.18.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용수보살안론》의 눈 치료 금기일**

甲子、丙寅, 不可治左, 乙巳、丁丑, 不可治右.

갑자(甲子)와 병인(丙寅)일에는 좌측을 치료하지 말아야 하고, 을사(乙巳)와 정축(丁丑)일에는 우측을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庚寅, 不可治眼頭, 辛巳, 不可治眼尾.

경인(庚寅)일에는 눈머리를 치료하지 말아야 하고, 신사(辛巳)일에는 눈꼬리를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壬不治上臉, 己不治下臉.

임일(壬日)에는 윗눈꺼풀을 치료하지 말아야 하고, 기일(己日)에는 아랫눈꺼풀을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建定禁晡時, 除禁日入.

건정일(健定日)에는 늦은 오후를 금하고, 제일(除日)에는 해질 무렵을 금한다.

滿禁黃昏, 平禁人定.

만일(滿日)에는 어둑어둑해질 때를 금하고, 평일(平日)에는 늦은 밤을 금한다.

定禁夜半, 執禁鷄鳴.

정일(定日)에는 한밤중을 금하고, 집일(執日)에는 첫닭이 울 무렵을 금한다.

破禁平朝, 危禁日出.

파일(破日)에는 새벽을 금하고, 위일(危日)에는 해가 뜰 무렵을 금한다.

成禁食時, 收禁禺中.

성일(成日)에는 밥 먹는 시간을 금하고, 수일(收日)에는 오전 10시 경을 금한다.

開禁日中, 閉禁日昃.

개일(開日)에는 정오를 금하고, 폐일(閉日)에는 오후 2시 경을 금한다.

右件日, 醫眼鍼閉, 不可下手. 大忌子日, 不可治眼, 不見光明.

이상의 날들에 눈을 치료하기 위한 침술은 폐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일(子日)도 크게 꺼리는 금기일로서 눈을 치료하지 말아야 하고 밝은 빛을 보아서는 안 된다.

### 1.3.19. 《素問靈樞經》凡刺之禁法 《소문영추경》의 자침금기

新內勿刺, 已刺勿內.

막 도착하여서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미 침을 맞은 사람을 다시 오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已醉勿刺, 已刺勿醉.

취한 사람에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는 안 된다.

新怒勿刺, 已刺勿怒.

금방 성 낸 사람에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 성을 내어서는 안 된다.

新勞勿刺, 已刺勿勞.

힘을 쓴 후에 침을 맞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는 힘을 써서는 안 된다.

已飽勿刺, 已刺勿飽.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침을 맞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는 배부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已飢勿刺, 已刺勿飢.

허기진 상태에서 침을 맞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는 허기져서는 안 된다.

已渴勿刺, 已刺勿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침을 맞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는 목이 마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大驚大恐, 必定其氣乃刺.

환자가 크게 놀라거나 크게 무서워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기운을 안정시킨 후에 침을 놓아야 한다.

若乘車來者,臥而休之,如食頃乃刺.

수레를 타고 온 사람은 누워서 쉬게 하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침을 놓는다.

出行來者,坐而休之,如行十里頃乃刺.

걸어서 온 사람은 앉아서 쉬게 하고 10리 정도 갈 시간만큼 지난 뒤에 침을 놓는다.

凡此禁者,其脈亂氣散,逆其榮衛,經氣不次.因而刺之,則陽病入於陰,陰病出於陽,邪氣復生.粗工勿察,是謂伐身.形體淫洩,乃消腦髓,津液不化,脫其五味,是謂失氣也.

대개 이러한 금기를 두는 것은 맥이 어지럽고 기운이 흩어지면 영위(榮衛)가 역행하게 되고 경락의 흐름에서도 순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침을 놓으면 양분(陽分)에서 발생한 병은 음분(陰分)으로 들어가고, 음분에서 발생한 병은 양분으로 나오며 사기(邪氣)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데, 이는 모자란 의사가 잘 살피지 않은 탓이니 이를 일컬어 ‘몸을 공격하여 상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몸을 맡기면 뇌수가 소모되고 진액이만 들어가지 않으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니, 이를 일컬어 ‘기운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1.3.20. 《鍼經》雜忌法 《침경지남》에 수록된 잡기법(雜忌法)

《經》云, 惡於鍼石者, 不可與言於至巧. 氣血羸劣者, 不可刺. 久病篤危者, 及大寒大熱, 大風大雨, 大飢大飽, 大醉大勞, 皆不可刺.

《내경》에서 이르기를, 돌침 놓는 기술이 형편없는 사람과는 지극한 기교를 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혈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병을 오래 앓아 위독한 경우,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날씨,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세차게 오는 날, 매우 허기진 상태나 매우 배부른 상태, 심하게 취하였거나 힘을 많이 쓰고 난 뒤에도 모두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然大寒無刺, 令病人於無風暖室中, 啜以粥食, 飲以醪醕, 令病人無畏寒氣, 候氣息調均, 然後可刺. 如此治之, 無疾不愈. 餘皆倣此而行之.

그러나 심한 추위에 침을 놓지 말라고 한 내용의 경우, 환자로 하여금 바람이 불지 않는 따뜻한 방 안에 거처하게 한 후, 죽을 먹고 발효주를 마시게 하여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하고 호흡을 조화롭고 고르게 하여준 후에는 침을 놓아도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치료하면 낫지 않는 병이 없을 것이니 나머지 경우도 이와 같이 행하면 된다.

又云, 無刺漉漉之汗, 無刺混混之脈, 無刺熇熇之熱, 此之謂也.

또한 이르기를, 땀이 뚝뚝 떨어질 때에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맥상이 혼잡할 때에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되며 열이 나서 불덩이 같을 때에도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러한 사항을 말한 것이다.

### 1.3.21. 《明堂經》候天色法 《황제명당구경》의 하늘 기색 보는 법

凡點灸時, 若值陰霧大起, 風雪忽降, 猛雨炎暑, 雷電虹蜺, 暫時且停, 候待晴明, 卽再下火灸之. 灸時不得傷飽大飢, 飲酒大醉, 食生硬物. 兼忌思慮愁憂, 恚怒呼罵, 吁嗟歎息. 一切不祥, 忌之大吉. 《資生經》同.

무릇 뜬다 뜬다 하는 중에 만일 안개가 크게 일어나거나, 눈보라가 갑자기 불어오거나, 폭우나 폭염이 있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혹은 무지개가 뜨거든, 잠시 멈추었다가 날씨가 개기를 기다려서 다시 불을 붙여 뜬다. 뜬다 뜬다 때에는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허기져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 크게 취해도 안 되며, 날 것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또한 깊은 생각이나 근심걱정을 삼가야 하고, 성내거나 소리쳐 꾸짖거나 한숨 쉬고 탄식하여서는 안 된다. 상서롭지 못한 모든 것을 삼가는 것이야말로 크게 길한 것이다. 《자생경》도 이와 같다.

又云, 凡醫者, 若不能知此諸般禁忌, 趨吉避凶, 妄亂鍼灸, 非惟不能愈疾, 甚者, 或致患人傷生喪命, 爲害非輕. 若逢病人, 年命厄會處, 男女氣怯, 下手至難. 通人達士, 若遇卒急暴患, 何暇選擇避忌? 則不可拘此.

또한 이르기, 무릇 의원된 이가 이러한 모든 금기를 통해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어지럽게 침과 뜬다 행한다면, 단지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기를 손상시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그 해로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만일 환자의 나이가 운명에 재앙이 들어오는 고비에 해당될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기운이 약해져서 손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치에 통달한 의사라 하더라도 만일 위급하고 갑작스러운 병에 맞닥뜨린다면 어느 겨를에 택일을 하고 금기를 지키겠는가? 그러한 경우라면 이러한 금기에 얽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若是禁穴, 諸般醫療不差, 明堂許灸一壯【《資生經》一壯至三壯】, 更宜以意詳之.



만약 이 금기 혈위로 모든 치료를 하였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명당에 땀 한 장을 뜨도록 하고【《자생경》에는 한 장에서 석 장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1.3.22. 《易簡方》灸膏肓忌法 《이간방》에 수록된 고향(膏肓)에 땀 땀 때의 금기법

今人見病人畏灸, 多謂無力勝火, 當候少愈. 此大不然, 倘能漸安, 又何必灼艾? 此皆悠悠之語. 及其病成, 則悔無及矣.

요즘은 환자에게 땀 뜨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불을 이기기에는 기운이 없으니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려서 땀을 떼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니, 혹여 점차 편안해진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땀을 뜨겠는가? 이는 모두 황당무계한 말이다. 이미 병이 심해진 뒤에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

凡灸此穴者, 切不可灸三腕腹中臍下等處. 若前後受火, 則炎氣交攻, 中腕鬲截, 往往嘔吐清水, 或氣息喘急, 或渴欲引飲. 名爲火邪, 多有致斃. 治法以黑豆煎湯, 徐徐解之, 輕者尚可療也. 或謂灸膏肓, 多致不救. 不然, 乃灼艾傷晚已不及耳.

무릇 고향혈에 땀을 땀 때에는 상완, 중완, 하완을 비롯한 배 가운데나 배꼽 아래 등의 자리에는 절대로 땀을 뜨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앞뒤로 화기를 받으면 타오르는 기운이 오가며 공격하여 중완이 막히고 끊어지므로, 맑은 물을 토하거나 숨이 차고 급해지며, 목이 말라 물을 자꾸 마신다. 이것을 일컬어 ‘화사(火邪)’라고 하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법으로는 검은콩 끓인 물로 서서히 풀어 주는데, 가벼운 경우라면 치료가 가능하다. 고향에 땀을 뜨면 구제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땀 뜨기를 너무 늦게 하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1.3.23. 《資生經》灸艾雜說法<sup>62</sup> 《자생경》에 수록된 쑥뜸에 관한 잡설

凡灸艾, 皆以日正午以後, 方可下火灸. 謂陰氣未至, 灸無不著. 午前平朝, 穀氣虛, 令人癰眩. 大概如此, 卒急者, 不可拘此. 【《銅人》同.】

무릇 쑥으로 뜸을 뜰 때에는 모두 정오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불을 붙이는 것이 옳다. 이는 음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때에 뜸을 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아침 시간은 곡기가 허한 시간이므로 이 때에 뜸을 뜨면 환자에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대개 이와 같지만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동인침구경》도 이와 같다.】

---

<sup>62</sup>. 《資生經》灸艾雜說法 : 《침구자생경》에는 “相天時”라는 제목으로 나온다.

### 1.3.24. 《資生經》點艾火法 《자생경》에 수록된 뜸에 불 붙이는 법

《下經》云, 古來灸病, 忌松、柏、枳、橘、榆、棗、桑、竹等八木, 切宜避之.

《하경(下經)》<sup>63</sup>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병 치료를 위해 뜸을 뜸 때에는 소나무, 잣나무, 탕자나무, 굴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대나무 등의 여덟 종류의 나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又《下經》云, 灸時不得傷飽大飢, 飲酒食生硬物.

또한 《하경(下經)》에 이르기를, 뜸을 뜸 때에는 배부르거나, 심하게 허기지거나, 술을 마시거나, 날 음식 및 단단한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又云, 令下里人灸後, 亦忌飲水將, 水濯手足.

또한 이르기를, 하리인(下里人)<sup>64</sup>에게 뜸을 뜸 후에는 물을 마시지도, 손발을 물에 담그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又灸後, 忌猪、魚、熱麪、生酒、動風、冷物. 鷄肉最毒, 而房勞尤當忌也.

또한 뜸 뜸 후에는 돼지고기, 물고기, 뜨거운 국수, 생주(生酒), 풍을 동하게 하는 음식이나 찬 음식 등을 금한다. 닭고기는 가장 독이 되고 성생활은 특히 금하여야 한다.

<sup>63</sup>. 《하경(下經)》: 《명당(明堂)》을 상, 하로 나눈 중의 하경(下經)이다. ↩

<sup>64</sup>. 하리인(下里人): 시골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

**1.3.25. 莊季裕灸膏肓忌法** 장계유(莊季裕)가 말한 고향(膏肓)에 뜸 뜸 때의 금기법

灸膏肓穴後, 忌生冷、油膩、黏滑、鷄猪、魚蝦、筍蕨, 其他動氣發風之物. 并觸冒寒風暑濕.

고향혈(膏肓穴)에 뜸을 뜬 후에는 날 것과 찬 것, 기름진 음식, 찰지거나 미끈한 음식, 닭과 돼지, 물고기와 새우, 죽순과 고사리, 그 밖에도 기운을 동하게 하고 풍을 발동시키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풍한서습의 외감을 조심해야 한다.

#### 1.4. 跋 발문(跋文)

鍼灸之法, 近世絶少. 眞傳, 苟能得其竅領, 按圖而轉捩之, 則療疾, 誠召回生起死之功. 然第知鍼灸, 而昧於擇日趨避, 似猶有未盡善者.

오늘날의 침구법은 그 명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전수받은 기술에 담긴 법도와 강령을 얻어서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매진할 수 있다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참으로 기사회생의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침과 뜸만 알고 택일의 취지와 이로움에는 몽매하다면 오히려 침구의 좋은 면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일이 된다.

羅少耕觀察, 既將宋本《備急灸法》, 付諸梓人, 復得勝國《鍼灸擇日編集》, 以附麗之, 乃知盈天地間物, 必有耦. 此二書, 先後淪落海外, 歷數百年至今日, 而竝呈其祕於, 以見韜晦顯耀, 自有其時. 一經行世, 將各循途守轍. 注灸允洽其宜, 俾壽而臧痼疾, 因之立效. 其惠濟群生, 是亦仁術之一端矣.

나소경(羅少耕)이 보고 살피서 장송본(將宋本)《비급구법(備急灸法)》을 판목장이에게 맡겨 판각하게 하였고, [이전 왕조](#)<sup>65</sup>에서 간행한《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을 다시 얻었으므로 여기에 덧붙였으니, 그리하여 천지에 가득한 사물마다 반드시 짝이 있음을 비로소 알겠다. 이 두 권의 책은 시대의 차이를 두고 바다 밖에서 세상을 떠돈 지가 햇수로 지금까지 100년에 이르다가, 함께 그 비밀스런 모습을 드러내어 감추어졌던 것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니 비로소 때를 만나게 되었다. 일단 세상에 전하여 행해짐에 각각의 내용마다 옛 성현의 법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뜸법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수명을 더해주고 고질병을 억눌러주니 이로써 효험이 즉시 나타난다. 그 혜택으로 못 생명을 구제하니 이 또한 어진 기술의 실마리인 것이다.

光緒庚寅初秋, 金壇于希璟小宋, 校錄并跋.

광서(光緒) 경인년 초가을, 금단(金壇) 희경(希璟) 우소송(于小宋)이 교감과 기록을 하고 발문을 쓰다.

---

<sup>65</sup>. **이전 왕조** : 명(明)을 말한다. 조선에서 출간된 책임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적은 것이다. ↩

## 2.1.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 해제

### 2.1.1. 들어가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침구서와 종합의서들이 택일법을 수록하고 있다. 의서에 기록된 택일법은 제약 관한 택일, 섭생 관련 택일, 침구택일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도 침구택일법은 비교적 그 체계가 정연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다른 분야에서보다 침구에서 특히 택일법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침구치료가 운기(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사시절기)와 밀접하게 돌아가는 인체의 기혈을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침구택일은 사시절기의 기후변화에 응하여 변화하는 인체에 침구를 시술함에 있어서 그 효과는 최대화시키고 손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침구택일에 대한 가장 빠른 문헌 근거는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찾을 수 있다. 《황제내경》의 침구택일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시 및 절기와 밀접하다. 《영추(靈樞)》에서는 〈본수(本輸)〉를 비롯한 여러 편에서 사시에 따른 취혈법을 언급하였고, 〈구침론(九鍼論)〉에서는 인체의 8부위를 8절기에 연결시킴으로써 인체변화가 절기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음양계일월(陰陽繫日月)〉에서는 인기(人氣)의 소재부위를 4부위로 나누어 각각 3개월씩 해당부위의 자침을 금하였고, 〈오금(五禁)〉에서는 갑을일(甲乙日), 병정일(丙丁日) 등 십간일(十干日)에 금해야 할 부위를 5부위로 나누어 설명해놓았다. 침구택일법은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었고 운기학이 성행한 송대에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인정받았다. 후대의 침구택일법은 사시와 절기를 위주로 한 《황제내경》과 달리 매월과 매일의 간지에 따른 택일법으로 보다 분화된 것이 특징이며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조선중기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등에서도 내용상의 차이는 있으나 침구택일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침구택일의 사례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의안기록 안에서도 다수 확인되며 침구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1.2. 《침구택일편집》의 간행

김예몽의 서문에 의하면, “병을 치료하는 간편한 방법은 침구만큼 묘한 것이 없고, 침구의 도리에서 택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여 침구에서 차지하는 택일의 비중을 말하고 있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침구택일편집》은 택일에 관한 기존 방서의 내용을 망라한 책으로, 《황제내경》과 《천금방(千金方)》, 그리고 송금원시대의 다양한 침구서들에 수록된 각종 택일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편집해 놓았다. 《침구택일편집》은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인용된 문헌을 통해 의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침구택일편집》은 1447년에 전순의와 김의손이 정리, 간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실전되었다. 일본의 시의교유(侍醫敎諭)인 다기원견(多紀元堅)이 보관하던 유일본을 중국의 나가걸(羅嘉杰)이 발견하여 빛을 보게 되었는데, 나가걸은 1890에 상해에서 《침구택일편집》과 《경송본비급구방(景宋本備急灸方)》을 하나로 묶어 《중각침구택일편집(重刻鍼灸擇日編集)》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복각하였다. 중각본 서문에는 이 책이 매우 귀중한 책임을 설명하면서 ‘명의원관(明醫院官)인 전순의(全循義)와 김의손(金義孫)’의 저술임을 밝혀 놓았다. 그러나 ‘명의원관(明醫院官)’이라는 구절로 인해 중국 의서로 오인되어 오다가 북경을 방문한 한의학연구원 일행에 의해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 2.1.3. 《침구택일편집》의 내용구성

서문에 이어 수록된 16종의 인용문헌은 1. 《손진인비급천금방(孫真人備急千金方)》 2.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 3. 《보주동인수혈침구도경(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4.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5. 《두한경편집침경지남(竇漢卿編集鍼經指南)》 6. 《신간동인침구경(新刊銅人鍼灸經)》 7. 《침구광애서괄(鍼灸廣愛書括)》 8. 《사림광기(事林廣記)》 9. 《제인천금월령(齊人千金月令)》 10. 《원구집(元龜集)》 11. 《용목총론(龍木總論)》 12. 《자생경(資生經)》 13. 《소문영추경(素問靈樞經)》 14. 《소씨병원론(巢氏病源論)》 15. 《이간방(易簡方)》 16.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이다.

이 중 《원구집》과 《신간동인침구경》을 제외하면 모두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도 인용되었고, 《소문영추경》, 《용수보살안론》, 《천금방》을 제외하면 모두 송금원시대의 저작들이다. 인용 문헌 중에서는 《천금방》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는데, 24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천금방》에서 인용되었고, 《원구》, 《동인경(銅人經)》이 각 9회, 《명당(明堂)》 8회, 《성혜방(聖惠方)》 7회, 《광기(廣記)》 6회, 《침경(鍼經)》 5회, 《용목(龍目)》, 《용수(龍樹)》, 《兪穴(수혈)》, 《자생경(資生經)》이 각 2회, 《광애(廣愛)》, 《월령(月令)》, 《이간방》이 각 1회 인용되었다.

침구의 길일 및 금기일에 관하여 총 24개의 항목으로 기술하였으며 18번째 항목까지는 침구택일에 관한 내용을, 19번 이후로는 주로 구법에서의 각종 금기를 다루었다. 각 항목에는 인용 문헌을 밝혀 놓았고 의서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덧붙여 놓았다. 《침구택일편집》에서 문헌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편찬 방식은 《의방유취》를 연상시키지만, 《의방유취》에서와 같은 정밀성이나 인용문의 정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세월에 따른 원본의 훼손으로 글자의 식별이 어려워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추정된다. 《침구택일편집》은 독자적인 의론을 전개하기보다 각 의서에서 침구택일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교, 나열한 책이다. 비교한 내용을 보면 같은 택일법이라 하여도 의서에 따라 적게는 한두 글자에서 많게는 반 이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발견되는데, 《침구택일편집》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택일의 공통된 기준을 직접 마련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원칙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2.1.4. 조선중기 의서의 간이화된 택일법

《침구택일편집》 이후 침구택일법은 새롭게 정리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임상에서 활용할 때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경험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과 《의림촬요(醫林撮要)》,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에서 각기 다른 방법들을 선택한 것은 그러한 선택의 결과라 하겠다. 《동의보감》에서는 《침구택일편집》에서 의서마다 분분했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기본

적인 이론의 토대는 《내경(內經)》에서 찾았으며, 여기에 몇 가지 기본적인 택일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였다. 단순히 항목의 수만 비교하여도 한결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임상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선별하였다고 여겨진다.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침구택일편집》과 《동의보감》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림촬요》는 《동의보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관한 의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의림촬요》에서는 번잡한 여러 택일법들을 배제하고 혈기일(血忌日)과 온황일(瘟瘡日)만을 기재함으로써 활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침구택일편집》을 비롯하여 금원 시대까지의 침구서에 온황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조선중기 의서인 《의림촬요》와 《동의보감》, 《침구경험방》에는 공통적으로 온황일이 기재되었다. 특히 《의림촬요》는 온황일과 혈기일(血忌日)만을 침구금기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두 금기일을 중요하게 여긴 당시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침구경험방》에는 침구길일(鍼灸吉日)과 매월의 침구기일(鍼灸忌日), 신직일(神直日) 및 절기에 따른 태을(太乙)유주부위 금기법을 기록하였는데, 큰 줄기는 《동의보감》과 비슷하지만 《동의보감》에 기록된 택일법에 비하면 4종으로 더 간략하게 정리한 셈이다. 이는 침가의 입장이나 환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침구경험방》에서는 다른 신직일은 표의 형식으로 기재하였으나 온황일만은 가괄로 썼으며, 그 내용은 《의림촬요》에 실린 온황일 가괄과 동일하다. 온황일만을 가괄로 쓴 것은 온황일의 임상적 중요성과 보편적인 활용도를 시사한다.

### 2.1.5. 마치며

조선전기에 저술된 《침구택일편집》은 국내에서 활용되던 수입의서들에 수록된 침구택일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취합하고 비교, 정리해 놓은 책이다. 후대 의서들과 달리 이 책은 택일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다양한 택일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선중기 이후 저술된 의서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선택기준으로 보다 간이화된 택일법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침구택일편집》에서 정리된 택일의 방법들이 임상에서의 검증을 거

쳐 도착화되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택일에는 번다한 원칙들이 있지만 모든 금기를 피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 사고 또한 존재하였으므로 그 상충을 따지고 경중을 고려하여 금기가 가벼운 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임상기록에 따르면 간혹 일진 길일과 금기일이 겹치는 경우, 온황일(瘟瘡日)만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길로써 흉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임상에서는 극길(極吉), 차길(次吉), 평길(平吉) 등으로 길일에 차등을 두었다. 길일이면서 금기가 들지 않은 날을 극길, 그리고 길함으로 흉살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날을 차길, 평길이라 하여 꺼리는 바가 가벼운 날을 택해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당일의 일기는 이러한 금기들에 앞서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폭서나 흑한에는 치료하지 않았으며 흐리거나 풍우가 있는 날에도 혈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치료하지 않았다. 택일법을 오늘날의 임상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의 일반적인 임상현장에서처럼 기후조건과 무관하게 침구를 시술하는 현실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운기론의 핵심이 사시기후와 절기에 있는 것처럼, 침구택일의 방법론도 기후와 절기라는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중기 의서들이 《침구택일편집》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실정에 맞는 택일법을 추려내었듯이, 우리 역시 《침구택일편집》을 비롯한 여러 의서의 택일법을 음미함으로써 현대의 임상조건에 맞는 택일법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성자 홍세영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침구택일편집 鍼灸擇日編集

원저자 : 전순의, 김의손

국역 : 홍세영

해제 : 홍세영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5년 12월 14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박상영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

